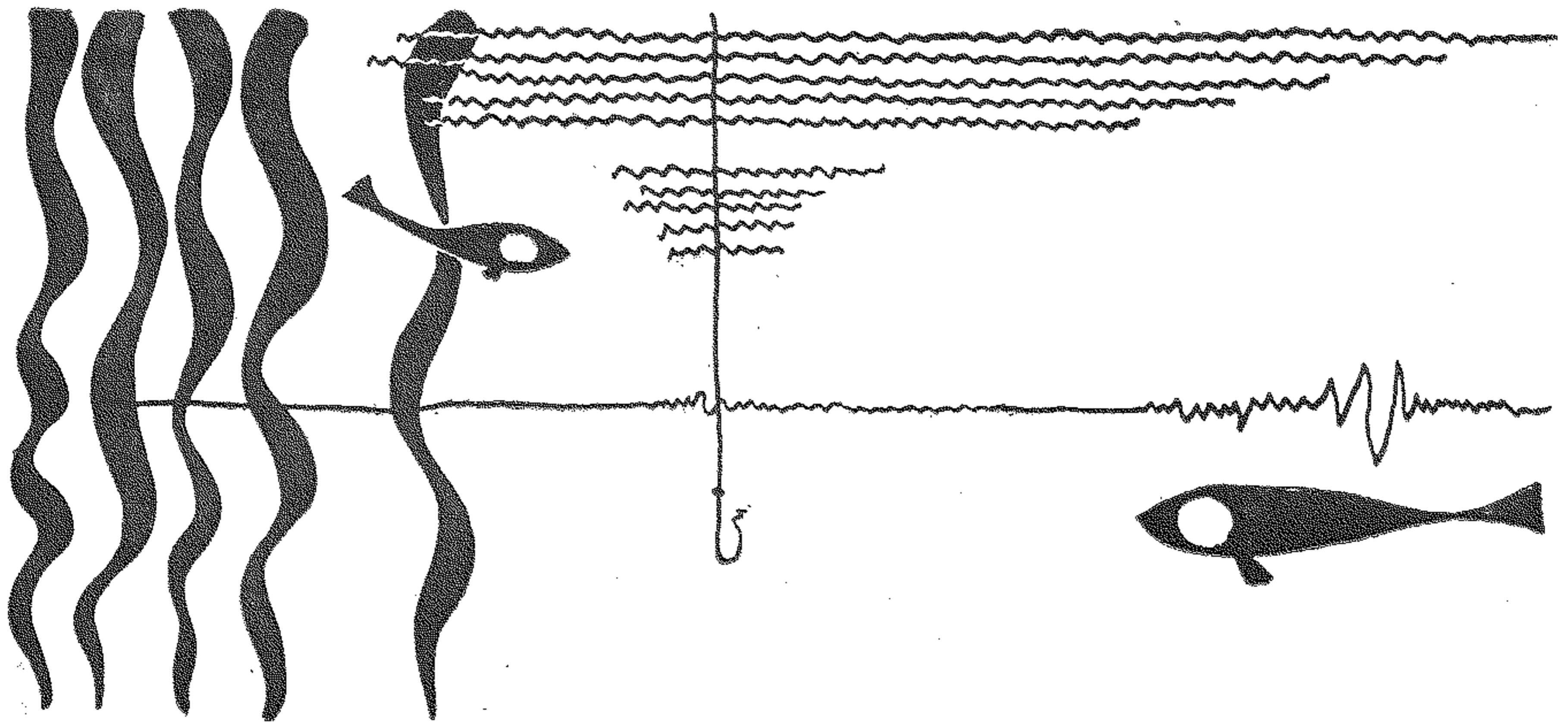


速記界

第 10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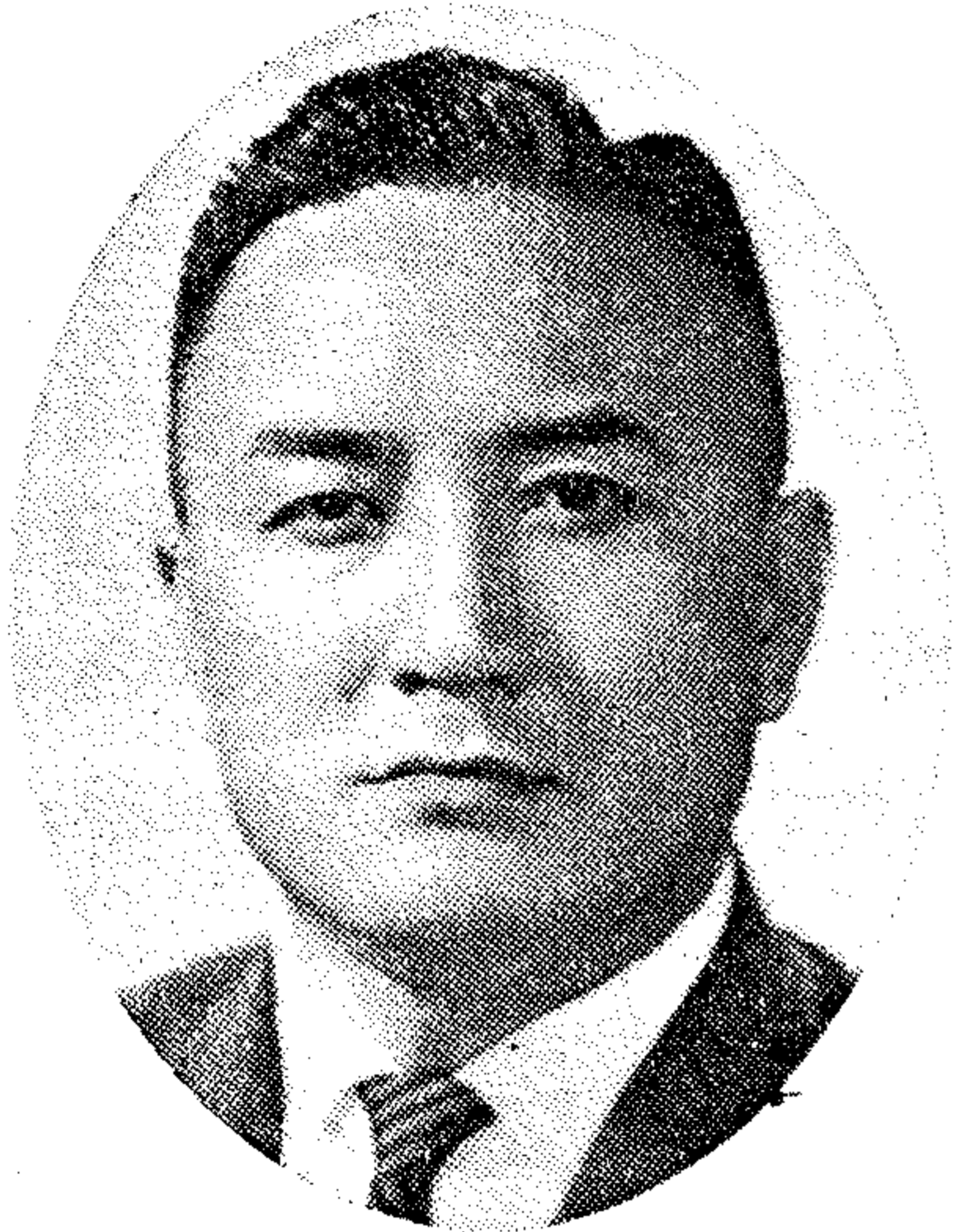
目 次

體力은 國力.....	會長 金 龍 泰.....	2
기능상으로 본 말과 기호	徐 正 南.....	3
韓國速記史發刊을 기대함	韓 奎 勳.....	6
● 速記資格技能檢定採點基準		9
● 한글전용과 表記문제	李 東 玉.....	12
<input type="checkbox"/> 特別寄稿		
된소리와 격한 소리 표기의 몇가지.....	李 升 九.....	15
덜 쓰고 다 읽어야 (1)	姜 駿 遠.....	18
<input type="checkbox"/> 養成現況	金 敬 萬.....	20
<input type="checkbox"/> 體育大會	高 用 培.....	23
<input type="checkbox"/> 「마나스루」登攀記 (1)	崔 錫 模.....	28
<隨筆> my first mistake.....	張 淑 卿.....	33
○ 第5回 臨時總會		36
○ 定 款		37

題 字 · 海汀 朴 泰 俊
 表紙그림 · 蔡 康 熙
 寫 眞 · 金 善 弼

體 力 은 國 力

會 長 金 龍 泰



싱싱한 新綠의 季節인 6월에 아름답고 조용한 이곳 安城골에서 第2回 速記人 體育大會를 갖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朝野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全國의 速記인들이 모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니 慶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會員들께서 거의 都市生活을 하기 때문에 健康管理에 소홀해지기 쉽고 더우기 靜的이며 神經의 消耗가 많은 속기업무에 從事하는 분들이라는 點에서 이와 같은 行事は 매우 要緊한 것입니다. 體育行事は 국가적으로 獎勵되는 것이니만큼 크고 작은 단체들이 각기 나름대로 이런 行事を 開催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現象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의 체력을 북돋아 즐쁜더러 健全한 氣風을

造成하고 和睦 團結을 圖謀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體力은 國力이라 했습니다.

실제 자기 職務에 임했을 때에 못지 않게, 休息과 娛樂이 지닌 再創造의 의미를 살리는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有念한다면 뜻있는 이들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뒷받침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國力培養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와 평소에 親近한 徐相潁건설위원장께서 이 모임을 위해서 物心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여러분과 더불어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또 연일 막중한 業務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각 국장 여러분께 敬意를 표합니다. 또한 京畿道知事を 비롯 이 지역의 많은 有志 기관장들이 나오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즐기면서 상호의 紐帶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란한 곳에서 웃음보다는 찡그린 얼굴을 하기 쉬운데 여러 會員들을 이렇게 맑고 시원한 곳에 나와서 대하고 보니 生氣에 넘쳐서 훨씬 美男美女로 보이는군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번거로웠던 日課에서 벗어나 마음과 몸이 허락하는 한 유쾌히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人事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國會議員)

기능상으로 본 말과 기호

—言語哲學的 解釋學的 立場에서—

徐 正 南

1. 言語哲學的 立場에서

빛이 보이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對話는 보이지 아니하는 內的인 世界의 깊이를 밝힌다¹⁾. 말의 意味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비추어진 表像을 들어내는 음상(Laut bild)이다. 또 기호와 비유와 상징의 모든 것을 包括한 人間의 '삶의 包括者' 로써 '存在의 집' 으로써²⁾ '存在의 밝힘'에 그 意味가 있다. 人間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또는 어떤 음향을 모방했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人間이 듣는 혹은 말하는 소리에 있어서 對象에 對한 그의 志向(Intention)과 意味를 드러낼 때 비로소 말이 된다고 한다³⁾

사실 言語의 本質的 意味와 그 秘密을 간단히 함축하기는 어려운 問題이다. 「야스퍼스」는 「말과 기호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① 말은 歷史的으로 形成되며 불확정적이고 豊富한 意味를 지니고 있고, 使用되면서 발전한다. 기호는 人爲的으로 考案된 것이며 고안되면서 엄격히 定義된 것이다. ② 말은 多義的인데 기호는 一義的이다. ③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그 意味는 변천한다. 기호는 一義的이므로 움직임이 없고 機械的으로 支配될 수 있는 기능만을 가졌으며 그의 意味는 고정적이다. ④ 말은 그 포괄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기호는

유한한 意味를 가졌으며 理性만을 위해서 타당하며 情調나 배후가 없다. ⑤ 말은 대치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완전하게 번역될 수는 없다. 기호는 그 意味가 완전히 定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意味를 표시하는 다른 기호로써 대치될 수 있다. 기호는 기술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위해서 편리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⑥ 말에는 언제나 완전히 정리될 수 없는 '나머지'가 있다. 이것이 말의 비밀이다. 말에 있어서는 음향과 그 연합이 重要的 意義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은 合理的으로 分析될 수 없는 情調를 가진다. 기호는 말이 가진 어두운 '나머지'가 없이 분명하다. ⑦ 말과 기호의 가장 本質的인 차이는 기호가 이미 형성된 고정적인 概念을 표시하는데 대해서 말은 막연한 想念을 概念으로써 비로소 밝힌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말도 역시 일정한 개념을 표시하는 기호의 기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

만 말은 그 의미와 다양한 가능성, 표현의 풍부함, 이해시키는 능력, 자극하는 힘에 있어서 언제나 기호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므로 말을 기호로써 대치하려는 노력은 처음부터 말의 본질을 잘못 理解한 言語觀에 근거한, 잘못된 試圖라는 것이다.

以上에서 기호들의 조작(operation)을 통한 '記錄'이라는 노력이 言語의 本來的 意味傳達와 理解能力에서 얼마나 不完全하고 虛點투성이인가를 짐작할만 하다. 그러나 人類歷史가 始作된 후 지금까지 그나마 '기호'라는 도구가 없었던들 그 무엇에다 人類의 역사를 담아둘 수 있었을 것인가? 말이 外部에서 받은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 또 知覺되고 認識된 것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면서, 認識을 비로소 可能하게 하는 創造的인 役割을 하는 면에 비하여 볼 때 기호의 기능이야말로 사실은 知覺, 認識作用의 無단한 반복, 回生(reviviscence), 傳達, 理解, 體驗, 그리고 새로운 表現을 可能케 하는 그 創造的 기능으로 하여 人類 歷史와 文化를 點綴해 주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호조작의 노력이 본질적으로 언어의 포괄성을 완전하게 대치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호를 통하여서만이 言語의 本質적 의미와 기능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언어가 '存在의 집'인 것처럼 기호는 '말'을 담아둘 수 있는 '작은 그릇' 또는 '작은 집'에 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前述한 기호의 본래적 기능들에 관하여 速記文字라는 좁은 범주에 국한시켜 解釋學的 立場에서 몇가지 問題點을 생각해 보려 한다. 속기는 그 기능상의

특수성 때문에 主로 公文書的 性格의 記錄文書에 보다 많이 活用되고 있다. 따라서 記錄者의 責任限界는 기계적 고정적 一義的인데 그칠 수 밖에 없고 그 以上 언어의 본래적 의미전달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기등 기계적 기록수단에 완전히 의존해 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理由 背後에 더욱 高次的인 速記者의 使命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事像에 對한 本來的 의미의 바른 전달, 바른 이해, 바른 體驗, 바른 表現, 바른 回生을 위하여 말의 本來的인 情調나 어두운 '나머지'까지도 徹澈해 들 수 있는 기호의 案出과 조작이 當面課題인지도 모르겠다. 다음에 解釋學的 立場에서 一考를 가하고자 한다

2. 解釋學的 立場에서

이 領域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다. 그런데 「딜타이」는 그의 해석학에서 '理解'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自然은 說明하고 精神生活은 理解한다'고. 이 말은 삶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自然現象들은 그것을 分析하여 原子와 같은 가장 단순한 요소로 환원하여 이들로부터 우리의 經驗에 依하여 인정되거나 假說的으로 인정된 法則을 종합함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정신적인 세계나 문화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극히 미소한 現象이라도 그 자체가 의미와 價値와 構造에 있어서 全體이므로 自然現象을 다루듯 분석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삶을 그 자체로부터 이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지적인 삶의 포괄자인 언어의 理解 그리고 언어가 담길 '작은 그릇'인 기호와의 관련성

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술라이에르마하」에 依하면 理解는 생생한 ‘對話’이고⁴⁾, 「가다마」☆에 依하면 ‘언어는 이해가 그 속에서 (성취되는 一般的인 媒介이며 이해의) 성취방식은 해석이다’고 지적한 것은 결국 모든 이해는 해석이고 모든 해석은 엄밀히 살펴보면 對話인데 모든 對話는 물음과 應答의 辨證法的 過程으로써 理解의 현상이 言語를 媒介로 해서 성취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삶의 關係’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어는 기호라는 ‘작은 그릇’에 담겨짐으로써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는 영원성을 보충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理解는 언어와 기호를 통하여 하나의 창조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기호는 ‘삶 그 자체를 ‘이해’ 시키는데까지 ‘언어’를 담은 ‘작은 그릇’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같은 기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기호와 기록자(速記와 速記者)는 함께 기계적 고정적 일의적 記述手段인 錄音「시스템」이상의 次元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델타이」에 의하면 이해는 또 體驗에 근거하고 人間이 어떤 하나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 하나의 對象을 認識했다 할 지라도 그 人間自身이 그 인식대상과 직접적인 부딪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인식을 체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사상의 산 연결을 자기의 것으로 ‘再生産’ 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⁵⁾.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人間이 그 인식대상과 접함에 있어 對話를 通하는 外에 기호——文章을 通하여 한 人格에 부딪침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文化가 그렇고 藝術이 그렇다.

한편 「니체」는 人間의 삶을 직접적인 自我省察을 通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反해서 「델타이」는 이러한 方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삶은 근본적으로 다만 그의 주어진 표현에 있어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표현은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흐름으로서의 삶에 언제나 일정한 형식들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表現함으로써 자기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는 삶의 「카테고리」로서의 표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체험이 표현을 가져오고, 표현은 체험의 생생한 내용을 나타내고 또 새로운 체험을 불러 일으킨다’ ‘삶의 표현은 사람의 의식이 비춰주는 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부터 체험을 가져온다’고 이와 같이 「델타이」는 체험 표현 이해의 세 「카테고리」를 통하여 ‘삶’을 把握하려 했는데 위에서 본 바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흐름으로서의 ‘삶’이나 ‘체험의 생생한 내용’, ‘사람의 意識이 비춰주는 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부터의 체험을 가져오는 표현’이 모두가 言語와 記號와의 相互依存的 補充的關係에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韓國法式出身)

註：1) 李奎浩, 말의 힘(서울：第一出版社, 1970) p.45

2) 上揭書, p. 22, p. 137

3) 上揭書, p. 45~56

4) 李奎浩, 現代哲學의 理解(서울：崇義社, 1964) p. 274~275

☆) 上揭書, p. 274

5) 俞동식, 허혁譯 성서의 실존적 이해(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0) p. 73

韓國速記史 發刊을 期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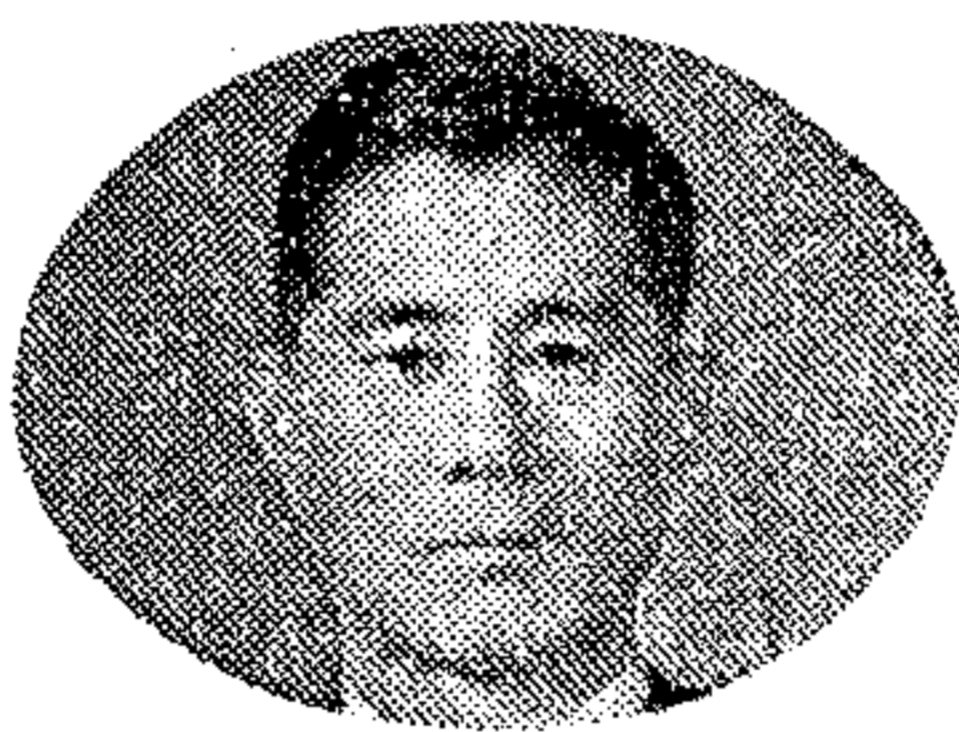
韓 奎 勳

協會 會誌「速記界」第7號
卷頭言은

「오늘날의 韓國의 速記界는 1909年 朴如日에 의해 우리 速記法式이 創案 發表된 以後 62年이 되는 바 우리도 이제 大轉換期를 맞이할 때가 아닌가하는 어떤 強迫觀念에 쫓기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轉換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速記總覽」第1輯의 發刊은 韓國速記界의 大轉換을 意味하는 것이 아닐는지. 그 發刊辭에도 말했듯이 韓國速記界는 速記學術 理論定立을 위한 事業에 着手하여 그 첫 成果로서「速記總覽」第1輯을 發刊하게 되었다. 우리 速記界가 理論定立을 위한 事業에 着手하게 되었다는 것은 歷史的인 事實로 높이 評價되어야 할 줄 안다.

韓國의 速記界는 1909年以來 62年이 된다고 하지만 事實上 우리나라에서 速記가 胎動한 것은 日帝에 잃었던 우리 말을 다시 찾게된 8.15 解放後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말을 다시 찾으면서 胎動하여 誕生한지 20餘年이 지났다. 人生 20餘年이면 成人이 된다. 速記界라고 成人이 되는데 60餘年이 걸린 것은 아니다. 解放後



20餘年을 成長하여 成人이 되었고 成人이 되고 보니 壁에 부딪치게 된 것이 아닐까? 다시 發刊辭를 引用하면 「우리 速記界는 速記術의 開發, 發展에 치우쳐온 까닭으로」그 理論的 體系를 갖

추지 못하였다. 成長하느라고 理論的 體系를 갖출 겨를이 없었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成人이 되면 身體가 成人일뿐 아니라 成人다운 思想을 가져야 한다. 思想이 너무 거창하다면 思考라고 해도 좋다. 成人다운 思考를 위해서는 理論의 뒷받침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速記總覽」第1輯의 發刊은 韓國速記 發達過程에 있어서의 時代的 要請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歷史的 事實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훌륭한 事業을 위하여 盡力하신 關係者 여러분의 功勞를 찬양하면서 또다시 發刊辭를 引用한다.

「여기에 論爲된 理論에 異見이 있거나 加筆 必要部分에 대해서는 수시 指摘해 주어서 보다 完璧한 次輯이 되도록 協力하여 주기 바란다」

이를 引用하는 것은 내가 「速記總覽」第1輯을 批判하려는 것이 아니요, 完璧한 次輯이 되도록 協力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나는 먼저 發刊辭를 引用함에 있어 「速記學」을 「速記學術」로 고쳐 썼다. 그것은 速記學의 理論 定立뿐만 아니라 速記術의 理論定立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速記總覽」第1輯은 速記를 速記方式, 速記術, 速記錄, 速記實務, 速記士, 速記教育, 速記文化로 分類하고 一應 概念規定을 하고 있다. 一應 規定한다고 했으니까 討論을 거쳐 修正하려는 意圖인 것으로 짐작하고 나는 速記에 대한 概念規定은 速記學과 速記術에 대한 概念規定으로부터 출발해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意見を 提示하고 싶다.

速記法式 創案者는 速記實務와 아울러 速記教育을 考慮한다. 아무리 優秀한 速記法式이라도 天才가 아니면 習學이 안되거나 習得에 10年을 要한다면 無用之物이 된다. 아마 創案者들은 速記術에 앞서 速記學을 생각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니까. 現役速記士가 速記法式을 改良할 때에는 習學의 難易를 度外視할 可能性이 있다. 速記術에 置重하고 速記學을 等閑視하기 쉬운 것이다.

「速記總覽」第1輯을 한마디로 評한다면 이는 速記에 관한 理論展開의 試作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速記學, 速記術에 관한 理論的인 體系를 一部 간추렸다는 것은 劃期的인 事實이고 韓國速記史에 빛날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問題는 왜 試作品이 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速記總覽」第1輯은 거의 外國 資料에 依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資料가 없어 編輯者들이 얼마나 苦心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내가 速記學 云云하였지만 編輯者들도 몰라서가 아

니라 資料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그 고충은 目次에도 나타나 있다. 速記方式은 速記學의 分野이고 速記技術은 速記術의 分野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速記學의 理論이라기에는 資料不足으로 未洽하니까 苦肉之計로 第一編으로 묶으면서 「速記의 學問的 考察」이라는 題目을 붙인 것이 아닌지? 물론 이것은 부질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겠지만 資料의 不足을 痛感한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大轉換期를 맞이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어떤 強迫觀念에 쫓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速記學術에 관한 理論을 體系化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資料의 수집이 急先務가 되는 것이 아닐까. 資料의 수집 정리가 없이는 「速記總覽」第2輯의 發刊도 어려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亦是 試作品의 域을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

資料의 수집이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만 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貧弱한 資料라도 수집할 수 있을 것이고 살아 있는 사람의 記憶談을 速記錄化해서 資料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韓國速記史나 韓國速記學 發達史를 쓴다고 하자 30年史를 쓸것인가, 70年史로 할것인가? 朴如日 速記法式은 1909年 布哇에서 發表되었으나 實用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 實用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것은 研究해야 되겠지만 速記學이 아니었기 까닭에 速記術이 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1909年 以後 62年이라고 簡單히 「速記總覽」第1輯 第2編 序頭에다 쓸 수

있는 問題는 아니라고 본다. 「速記總覽」에 쓰면 그것이 正論으로 굳어질 緣려가 있다. 韓國速記史의 起點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問題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資料와 여러 사람의 意見交換이 없이는 解決될수 없는 것이다.

나는 以下 몇마디 妄言으로써 大韓速記協會의 厚意(「速記總覽」을 보내준다든지 會誌를 보내준다든지, 體育大會에 불러준다든지)에 보답하며 屢치없게도 또 「速記總覽」 第2輯, 또는 韓國速記史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한국은행)

消

息

○ 受 賞

1月 4日 國會事務處 始務式에서 金仁寧會員(協會財政部長)이 模範公務員賞(國會議長賞)을 탔으며 崔錫模會員(協會理事)이 模範 豫備軍賞(國會議長賞)을 탔다.

또한 3月 25日 本協會 理事長 安仁榮會員(國會 資編課史料擔當官)이 老대한 「國會史」 編纂의 功勞表彰으로 國會議長賞을 탔다.

한편 지난 5月 3日 申世華(本協會理事)會員이 國會事務總長으로부터 CPX(을지연습 72도상훈련) 공로표창을 받았다.

○ 外國視察

每年 實施되는 國會公務員 外國議會制度視察계획에 따라 今年에는 國會速記第2 계장 李東一會員(前理事長)이 選拔되어 지난 6月 12日 하오 2時 20分 KAL機 便으로 東南亞巡訪 길에 올라 16일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泰國 台灣 日本 등지의 議會制度를 돌아보고 6月 27日 귀국하였다.

○ 合 格 者 (國會速記士採用試驗)

國會事務處에서는 지난 4月 10日 11日 兩日間 施行한 國會速記職公務員 公開競爭採用시험 最終 合格者 7名을 4月 15日자로 發表하였다.

總應試者數 48名(男 30名, 女 18名)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종된 이번 採用試驗에는 議會法式이 34名 東邦法式이 14名 應試하였다.

實技시험인 1次시험에 있어 演說體 5分間 1,650字 朗讀에 (分速 330字) 75分間 翻文, 論說體 5分間 1,400字 朗讀에 (分速 280字) 75分間 翻文으로 平均 90點 以上 得點者로서 第2次(學科) 第3次(面接) 시험을 通過한 새로운 7名의 速記士가 탄생된 것이다.

合格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趙 永 昌(男·議會法式)

朴 順 必(男·議會法式)

李 承 哲(男·議會法式)

盧 熙 南(男·議會法式)

金 銀 珠(女·議會法式)

張 淑 卿(女·議會法式)

崔 禮 淑(女·議會法式)

이상 7名(男 4名, 女 3名)

速記資格 技能檢定 採點基準

資格審查委員會

一. 根 據

이 速記資格 技能檢定 採點基準은 資格 審查 및 技能檢定規程 施行細則 第6條 採點 基準을 더 細部的으로 規定한 것임.

二. 目 的

元來 正確한 速記라는 것은 發言한 內容을 誤字나 脫字 添字가 하나도 없이 發言한 內容 그대로 一般文字化한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一分에 300字以上이라는 高速音을 速記文字로 記錄하고 그것을 다시 一般文字化하는 作業過程에서 類似音의 誤聽으로 因한 錯誤, 速記文字의 誤記, 速記文字를 一般文字化하는 過程에서의 錯誤 등으로 誤字 脫字 添字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現在까지 資格審查委員會에서 實施해온 採點은 어떤 細部的인 採點基準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慣例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採點過程에서 採點者의 主觀이 介入되어 甲이 採點한 것과 乙이 採點한 것이 다른 結果가 나타나는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資格審查委員會에서는 1972年 3月13日 第7次 會議에서 草案作成을 幹事인 全海成氏에게 依賴하였고 1972年 4月 26日

第8次 會議에서 草案을 일부 수정하여 資格審查委員會案으로 理事會에 回附하였던 바 1972年 6月 3日 第34次 理事會에서 이를 審查한 結果 資格審查委員會案대로 通過하였음.

三. 審查過程에서 論難된 點

1. 表音主義와 表語主義

速記採點을 表音主義로 할것이나 表語主義로 할 것이나 하는 것이 審查過程에서 제일 重要한 문제점으로 提起되어 많은 論難이 있었으나 審查結果 現在는 過去의 表音主義에서 表語主義化되고 있지만 萬若 表語主義를 採擇할 경우 採點者의 主觀이 介入되어 客觀性이 保障되어야 할 試驗採點에 있어서 正確性을 期할 수 없다는 結論을 얻어 表音主義로 決定하였음.

2. 맞춤법과 外來語表記問題

맞춤법에 있어서는 아직 統一된 單一案이 없으므로 해서 學者마다 見解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規制對象에서 除外하고 外來語表記는 文敎部에서 制定한 表記法대로 쓰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發言者에 따라 相異한 發音을 하고 있는 것이 現實임으로 發音대로 記錄한 것도 正答으로 採點기로 하였음.

3. 添 字

誤字나 脫字은 客觀的으로 分明해서 問題가 없으나 이 添字문제는 規制하는데 技術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論難이 많았으나 審査結果 添字의 定義를 「發言한 글자數보다 더 記錄한 것을 말한다」라고 規定하였음.

四. 앞으로의 研究課題

審査過程에서 問題點으로 提起되었으나 現時點에서 어떤 規制를 하기는 困難하다고 해서 앞으로 研究課題로 남겨둔 問題가 있다.

1. 翻文內容이 朗讀한 것과 正反對인 경우(예 : 「된다」를 「안된다」 「있다」를 「없다」)와 採點上 利點을 노려 故意로 2重으로 翻文해 놓은 것(예 : 「그러나」를 「그래서 그러나」)에 대한 罰點問題
2. 統一되어 있지 않은 맞춤법 規制問題
3. 添字三字를 誤字一字로 規制하는 것이 果然 合理的인가?

五. 結 論

今般 速記資格 技能檢定 採點基準을 制定하기 위해 草案過程에서 여러 速記同人들의 意見을 들었으나 統一된 意見이 아니고 各者마다 다른 意見이어서 盡善盡美한 案의 制定은 困難하다는 것을 認識했다. 그래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可能的 限 客觀性이 保障된 採點基準을 制定하려고 最善을 다 했으나 본시 어려운 作業이었기에 솔직히 完成된 採點基準이 못되었음을 是認하며 不備한 點은 앞으로 施行해 가면서 補充해 나갈 것을 會員들께 約束드리오니 앞으로 많은 敎示와 叱正을 바랍니다.

1. 채점기준

① 뜻이 같고 발음상 구별하기 곤란한 것은 다 맞는 것으로 한다.

예 : 만=마는 덴=데는
 면=머는
 지만=지마는

① 낭독자가 오독한 것은 낭독한대로 기록한 것을 맞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분명한 오독인 경우는 정정하여 기록한 것도 맞는 것으로 본다.

예 : 낭독……敗北(패북)
 번문……패배

③ 외래어는 문교부가 제정한 표기법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발음대로 또는 원어로 기록한 것도 맞는 것으로 본다.

예 : 뉴우스 news
 뉴 스

④ 낭독한 내용이 앞뒤 단어를 바꿔 써도 뜻이 같을 때에는 둘다 맞는 것으로 한다.

예 : 이것을 우리가……우리가 이것을

⑤ 번문을 두가지로 동시에 병행하였을 때에는 원고란에 기록한 것을 맞는 것으로 하고 원고란 외에 기록한 것은 첨자로 한다.

예 :

△
이
하 는 데 그 것 을

⑥ 첨자에 있어서는 글자수로 계산하여 발언한 글자수 보다 많은 것은 첨자로 한다.

예

낭 독 내 용	번 문 내 용
정책이	× △△ 정책에 대해
.....에 대해서	× △ ...에 대하여서
하고 있다	× △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 × △△ 하고 싶을 때에

⑦ 번문 내용이 낭독한 것과 뜻이 다르더라도 그중에 낭독한 것과 같은 글자는 맞는 것으로 한다.

예 :

낭 독 내 용	번 문 내 용
정책문제에 대하여	× 재정문제에 대하여
농촌근대화를 위하여	× × × △ ×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⑧ 낭독 총자수의 3분의 1 이상 오자 탈자가 나오는 경우는 이를 채점불능으로 간주한다.

2. 오자 탈자 첨자에 대한 표시 방법

① 오자 및 탈자는 ×로서 매자를 표시한다.

② 첨자는 △로써 매자를 표시한다.

3. 오자 계산 방법

① 오자 및 탈자는 매1자를 1자 틀린것으로 계산한다.

② 첨자는 매 3자를 1자로 계산한다.

단, 첨자를 오자로 환산할 때에 나눈 나머지는 버린다.

예 : △32 32 ÷ 3 = 10자

4. 새로운 문젯점

본 채점기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문젯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알 림>

周知하시느 바와 같이 協會事業部에서는 協會重要事業의 하나인 第11回 夏季無料 速記講習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受講者가 激增하고 있음은 高度 文明과 더불어 現代人의 認識度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診斷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協會로서도 보다 効率的인 講習方案모색에 苦心하고 있는 바로써 講習 運營에 좋은 方案이 있으면 수시 事業部에 敎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第11回 講習의 希望法式에서는 所定の 書類를 갖추어 事業部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業部>

한글전용과表記문제

李 東 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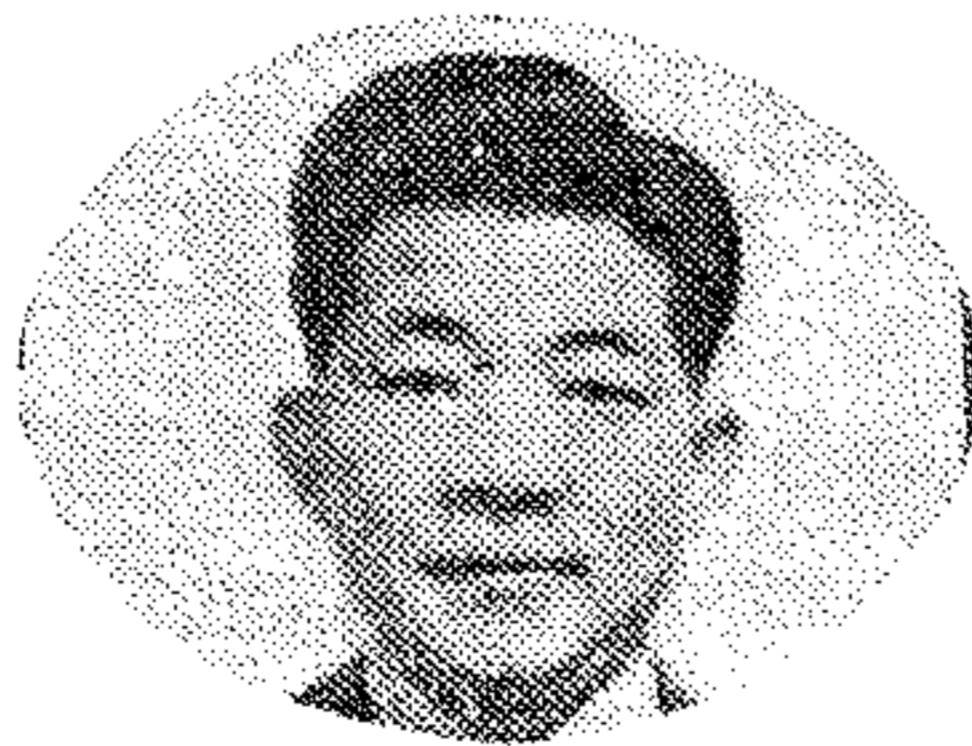
序 言

한글전용화정책에 관한 是是非非는 言語政策上 政策當路者나 一般國民이 너무나도 關心이 至大한 문제이므로 그에 對한 容喙를 떠나서 速記人一般이 한글전용을 前提로 國語를 表記하는데 따르는 문젯점을 簡略하게 檢討해 보고자 한다.

1. 速記와 國語

速記를 우리 言語生活에 있어서 音聲에 의한 意思表示를 文字에 의한 意思表示로 代替하는 活動 即 特殊記號를 翻文하여 一般文字化하는 過程 或은 技術이라 한다면 國語와는 表裏上의 同質性을 가진 相關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速記가 文語體 文章보다는 口語體 文章에 置重되고 特히 議會速記는 個人의 習癖, 特殊한 方言, 難解한 專門用語 등의 多樣性을 標準語로만 一元化하느냐 아니면 機械的인 處理를 하느냐 하는 表意性의 限界論은 速記技術에 一任하기로



한다.

다만 本稿에서는 國語表記를 어떻게 하여야만 할 것인가 하는 너무나 常識的인 문제를 實務者의 所見으로 窺察해볼까 한다.

① 國語의 構造

國語는 言語構成的 側面에서 共時的으로 볼 때 音韻上, 語彙上, 文法上의 許多한 特質을 지니고 있다. 音韻上 文法上의 特質은 且置하고라도 語彙上의 特質中 語彙만 보아도 固有語(Proper word)보다는 外來語(loan word) 特히 漢字語의 比重은 한글학회刊「큰 사전」의 統計에 依하면 全 158,673語中 固有語 43.6, 漢字語 53.9, 外來語 2.5%의 「프로테이지」를 示顯하고 있다.

② 國語教育의 現況

速記士가 되려면 高校卒業後 一年有餘의 修業으로 採用되면 實務에 從事한다고 볼 때 高校卒業까지의 教育課程이 漢字教育이나 漢文習得이 不足하여 新聞의 論說記事 등은 完全한 解讀이 어려운 現實이 平均的 水準인지라 年齡이나 經驗이 越等

相異한 言語驅使를 表記하는 데는 未洽한 感이 많으므로 相當한 時日의 修鍊이 所要된다고 본다.

③ 國語教育의 將來

한글전용화정책에 대한 尙早論이나 強行論은 文化政策

의 大宗인 國字語文에 관한 문제이므로 비단 操觚界에만 局限된 凡事가 아니며 學校와 社會가 長久한 時日에 걸친 過渡期的 試行錯誤를 거듭하면서 完全한 政策이 樹立되리라고 展望하는 바이다.

그러나 學者나 專門家가 아니더라도 日

常에서 瞬時로 生活하지 않을 수 없는 母國語의 使用에서 自國民이 切感하는 문젯점들은 特히 펜을 業으로 하는 生活人에게는 더욱 切實한바 있다 하겠고 教育의 根幹인 語文政策을 主管하는 當局의 一貫性있고 永久性있는 施政이 要望된다 하겠다.

2. 速記實務와 正書法

發言者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方言이나 訛語(사투리)의 發音을 알고 標準化된 發言을 한다면 速記士는 국어사전 하나만으로 表記上 隘路없이 責務를 完遂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速記의 社會的 機能이 單純한 領域에서 社會의 進化에 따라 좀 더 知的이고 高度의 精密度를 追求하는 認識을 前提한다면 國語의 特質에 비추어 速記士의 最終的으로 逢着하는 것이 正書法에 관한 分野라 하겠다.

① 正書法의 概念

正書法(Orthography)이란 國字統一의 目的을 위하여 말의 表記를 一定하게 하고 公衆이 使用하는 것으로써 權威있는 規範이 辭典의 形態로 된 바른 법의 체계와 公的 或은 綴字法을 말하며 말할 때에 標準語를 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에는 約束된 正書法에 맞도록 적는 것을 말한다.

② 綴字法에 관한 態度

綴字法 即 맞춤법에 관하여는 短見으로 이렇다 하기보다는 詳論을 專門家의 記述에 미루거나 速記文字를 翻文할 때는 내가 이 글을 써서 내면 編輯과 校正 그리고 印刷工程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을 勘案해서 放漫이나 墮性을 止

揚하려는 努力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特히 한글表記에 있어서 띄어쓰기나 句讀點, 그리고 文章符號의 올바른 使用은 視覺的 能率을 높이고 文字生活에 있어서 惹起되는 混同을 最小限度로 막으려는 目的이 있는 것인바 細心히 留意할 必要가 있다.

③ 翻文上 문젯점

發言速記의 最終段階라 할 翻文에 있어서 國漢文混用의 경우는 正書法에 맞게 쓴다 하더라도 同音異義語의 文脈上 正確한 表記라든가 天文學的 數値의 縮約表記 特殊地名, 人名, 事物名 等 固有名稱이나 外來語表記등에 관하여는 斷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文教當局이나 言論界, 學界의 趨移를 觀望하면서 整理해갈 문제라고 생각된다.

3. 한글전용과 漢字문제

政府의 한글전용에 관한 強力한 施策에 따른 斯界의 反應이나 學術院의 諮問으로 볼 때 學校教育에서의 漢字廢止論은 일단 再檢討中이며 制限의 幅을 두고 抽出試行中인 줄로 알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言論界가 政府施策에 順應치 못하고 한글날만 除外하고는 한글만 專用할 수 없는 所以라 짐작된다.

① 國會會議錄의 漢字使用

國會會議錄은 70年 3月頃부터 固有名稱이나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한글을 專用하고 있으나 議員의 年齡分布나 習慣이 純粹한 한글表記로는 讀解上 難點이나 混沌 等を 招來하는 數多한 制約이 있으므로 異論이 있으며 制限使用에 관하여는 記述面에서나 工程管理上의 根本的인 面의 改善이 副應되어야 한다는 隘路가 있

다.

② 國語查定作業

現在 文敎部가 한글학회에 委囑하고 있는 國語查定作業이 年內로는 마쳐진다고 傳聞되고 있으며 外來語 或은 外國語를 우리말로 代替하는 先行過程없이는 한글 專用은 拙速의 弊가 民族文化의 健全한 進運을 沮害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國立機關이 國語의 徹底하고도 科學的인 調查作業을 責任을 지고 持續性있게 推進하고 아울러 國語淨化를 모색한 然後 漸進的이고 効率적인 政策的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4. 結 言

以上の 記述은 너무나 常識的이고 疎漏한 느낌이 많으나 編輯者의 制限된 要求와 問題가 凡庸하였으며 누구나와 같이 우리말에 대한 愛着을 지닌 非才의 所以인지라 筆耕上의 表記문제에 대한 變죽만 맴돈듯 하다.

다만 國語史의 變遷이나 國語學의 發展이 外廓的 要因의 支配가 큰데서 오는 問題性的인 追究라는 觀點을 想起하는 것으로 맺음하고자 한다.

(國會速記士養成所 國語學講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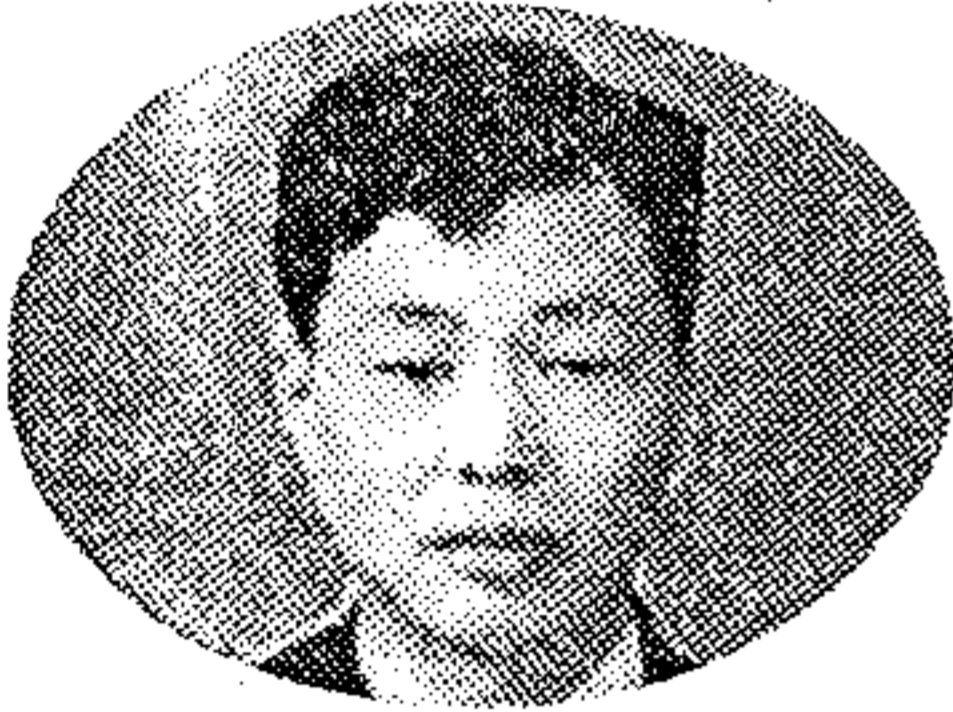
原 稿 募 集

다음 第11號는 9月末에 發刊됩니다. 어디까지나 會員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間의 積極的인 紐帶를 媒介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 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內容의 寄稿도 隨時 받고 있습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 編輯子에게 보내 주십시오. 新會員의 寄稿도 환영합니다.

- 表紙그림.....세로 가로 15센티 정도
- 研究論文..... 2 백자원고지 15~25枚
- 速記實務..... 2 백자원고지 15~25枚
- 回 想 記..... 2 백자원고지 15~25枚
- 隨 筆..... 2 백자원고지 10~20枚
- 詩, 時調, 散文, 기타 提言등

된소리와 격한소리 표기의 몇가지

李 升 九



된소리와 격한소리 표기는 정서법(正書法)상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여간 괴로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에 대해 말하느니보다 이것들에 대해 서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두가지 표기 방법에 대해 원칙과 그 문제점들을 간단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된소리는 한 낱말 안에서 나는 경우와, 두 낱말 사이에서 나는 경우, 그리고 한 자말 사이에서 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격한 소리는 두 낱말 사이에서 예사로 나는 경우(사이 흥)와 '—하다'가 줄어서 나는 경우(줄어든 흥)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된소리 표기

(1) 한 낱말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갓금·작금>가끔 웃뜸>으뜸
숫적새>소적새 붓석>부석 잇다금
있다금>이따금 햇속하다>해속하다
엳주다>여주다 엳지>어찌 맺뜸>대뜸

그러나 뜻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밝혀 적어야 합니다.

구끼>국기(國旗) 마똥서>맏동서(伯同婿)
마절>맏절(相拜)

(2) 받침 ㄱ. ㄷ. ㅂ. ㅅ. ㅈ 아래에서 ㄱ·ㄷ·ㅂ·ㅅ·ㅈ들의 첫소리가 이어져 된소리가 날 경우에, 아무 뜻이 없는 것이면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씩둑, 각두기, 딱다구리 (ㄱ+ㄷ)
속삭속삭, 각시, 색시 (ㄱ+ㅅ)
숨바꼭질, 삭정이, 백적지근,
박작박작 (ㅂ+ㄱ)
쩍데기, 답답하다 (ㅂ+ㄷ)
몹시, 맵시, 덩석, 야단법석 (ㅂ+ㅅ)
쩍죽쩍죽, 찻질, 갑자기, 넓적 (ㅂ+ㅈ)
죽정이 (ㄱ+ㅈ)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뜻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씩씩 빌다, 딱딱, 냇둑

(3) 명사나 부사 혹은 어원적 어근으로 된 한 말 안에서 ㄴ·ㄹ·ㅇ·ㄹ 아래의 소리가 아무 뜻이 없이 된소리로 날때,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쩍, 반짝	(ㄴ+ㅈ)
옴짝, 감짝, 껌짝(뽕짝), 째짜미	
옴쩍	(ㄹ+ㅈ)
옴싸, 음설	(ㄹ+ㅅ)
몽뚝, 몽뚝, 몽뚝그리다, 땅딸보	(ㅇ+ㅈ)
꼴각, 말끔, 째끔, 꼴적꼴적	(ㄹ+ㄱ)
꼴떡꼴떡, 알뜰, 째매기, 꼴뚝	(ㄹ+ㅈ)
글썽글썽, 늘씬, 글썸, 훨씬, 말썸	(ㄹ+ㅅ)
슬쩍, 살짝, 꼴짜기, 째죽, 활짝	(ㄹ+ㅈ)
날짜, 꼴적꼴적	

(4) 복합어나 이에 따를만한 말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또는 구개음화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윗말의 끝소리에 받침이 없으면 'ㅅ'을 받치어 적고,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된소리가 나더라도 적지 않습니다. 한자말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말 처리 방법에 따라 받침이 있으면 적지 아니하고, 받침이 없으면 'ㅅ'을 받치어 적습니다.

예를 들면

כות, 촛불, 빛가, 컷걸, 기왓장, 담뱃대
만뒹불, 콧날, 땃잎, 배갓잇, 아랫니, 이렛
날, 췌열, 잇과, 갓법, 훗수, 솟자

길가, 손등, 등불, 들보, 굴대

집일, 물약, 쌀엿

상과(商科), 감법(減法), 한자(漢字)

그러나, 이상의 규정도 실제로 실무에

적용시킬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 그때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할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 '가루'에 대한 것

미숫가루, 니릿가루, 윗가루, 싯가루
조개껍데기가루, 카레이가루,
시멘트가루

(나) '날'에 대한 것

대팻날, 가윗날, 면도날, 까귀날
단옷날, 가윗날(추석), 수릿날, 제삿날
어린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국군의 날

(다) '물'에 대한 것

낙숫물, 시냇물, 바닷물, 시냇물, 세숫물
수도물, 소오다물, 시멘트물, 석회물

(라) '줄'에 대한 것

고팻줄, 빨래줄, 피땃줄, 전깃줄, 문땃줄
시계줄, 철사줄, 고무줄, 줄넘기줄

(마) 한자말에 대한 것

현재의 규정대로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처리해 놓은 사람마저 수궁이 가지 않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格, 科, 課, 權, 點, 罪, 症' 등이 붙는 말들이 그러한 예에 속하는데, 이 경우에 '사이ㅅ'을 받치어 쓴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번거로움밖에 없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조절이 國語政策上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ㄱ) '科', '課'에 관련된 것

피땃과, 칫과, 소앗과

문리과, 속기과, 의사과, 회계과

(ㄴ) '病'에 관련된 것

공수병(恐水病), 토유헌(吐乳病)
물렁색이병, 바제도우씨병, 호흡기병,
땅서리병, 허리마비병

(ㄷ) '症'에 관련된 것

허기증(虛飢症), 황수증(黃水症), 변비증
(便秘症), 표피박리증(表皮剝離症), 태아
성 적아구증(胎兒性赤芽球症), 색소성건피
증(色素性乾皮症)

(5) 한 낱말 아래 다시 된소리나 격한
소리로 시작되는 낱말과 이어질 경우에는
'사이 스'를 받치어 적을 필요가 없습니
다.

예를 들면,

반댓쪽>반대쪽>, 뒷쪽>뒤쪽,
개핏떡>개피떡, 허릿띠>허리띠
갈빗뼈>갈비뼈, 뒷편>뒤편,
아랫편>아래편, 윗턱>위턱
뒷처리>뒤처리, 윗층>위층

(6) 이틀, 설, 삼질 들과 같이 'ㄹ' 받
침을 가진 낱말이 그 아래 다른 음절이
붙어서 복합어로 되었을 경우에는 'ㄷ' 받
침으로 적읍니다.

예를 들면,

이틀+날>이틀날, 설+달>설달
사흘+날>사흘날, 나흘+날>나흘날
삼질+날>삼질날,
바느질+고리>반질고리

2. 격한소리 표기

(7) 복합어 사이에서 'ㅎ' 소리가 나는
것은 다음 첫소리에 섞어 적되, 새로 제

정된 학습 용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
읍니다. 다음 첫소리에 섞어 적어서 격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 나는데로 적
읍니다.

예를 들면,

수ㅎ닭 · 암ㅎ닭>수닭 · 암닭(ㅎ+ㄷ=ㄷ)
수ㅎ개 · 암ㅎ개>수개 · 암개(ㅎ+ㄱ=ㄱ)
수ㅎ돼지 · 암ㅎ돼지>수돼지 · 암돼지
(ㅎ+ㄷ=ㄷ)

수ㅎ고양이 · 암ㅎ고양이>수묘양이
암묘양이(ㅎ+ㄱ=ㄱ)
수ㅎ평 · 암ㅎ평>수평 · 암평(ㅎ+ㅍ=ㅍ)
수ㅎ구렁이 · 암ㅎ구렁이>수쿠렁이
암쿠렁이(ㅎ+ㄱ=ㄱ)
수꽃 · 암꽃
수그루 · 암그루
수ㅎ말 · 암ㅎ말>수말 · 암말(ㅎ+ㅁ=ㅁ)
수ㅎ놈 · 암ㅎ놈>수놈 · 암놈(ㅎ+ㄴ=ㄴ)
수ㅎ양 · 암ㅎ양>수양 · 암양(ㅎ+ㅇ=ㅇ)

(8) '하다'의 'ㅏ'가 줄어 'ㅎ'소리만
남을 경우에는 'ㅎ'을 그 자리에 뚫을 원
칙으로 하고 그 윗말에 붙여 씀을 허용합
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말에
서는 윗말에, 한자말에서는 그 자리에 두
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가(可)하다, 가ㅎ다(—고, —지—계)
장다(장다붙다)
흔하다, 흔ㅎ다, 흥다
아니하다, 안ㅎ다(안하다), 앓다
정결하다, 정결ㅎ다, 정꺾다
아무리하든, 아무ㅎ든, 애통든

(大韓教科書<株> 出版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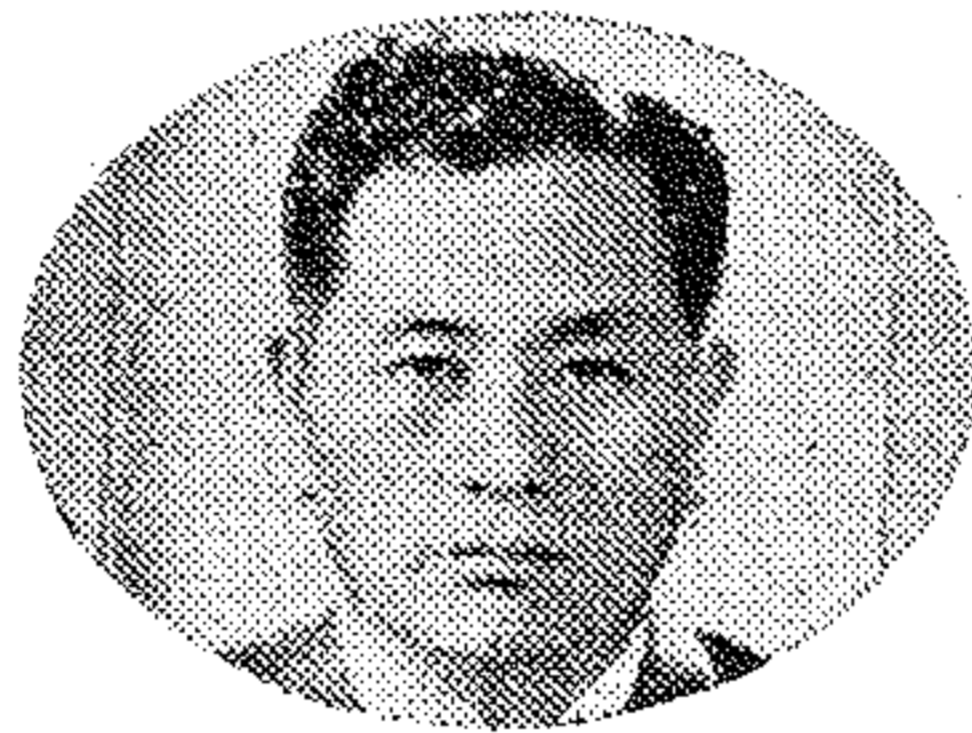
덜 쓴 것도 다 읽어야

<縮字와 略字의 體系化문제>

姜 駿 遠

(1)

기본 문자가 효율적(效率的)으로—더 나아가서는 아름답게 써지게까지 되어 있어야 속기가 가능함은 속기법 구성의 기초 요건(要件)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밝은 세상에 선재(線材)자체의 편도(便度)나 빈출율(頻出率) 따위도 모르고 주먹구구식 기본문자를 만들어 그저 연습만 거듭하면 속기가 되려니 하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자가 간추려진 원도(源圖)를 보면 크게 세 유파(流派)로 고안된 연대순(年代順)으로 다룰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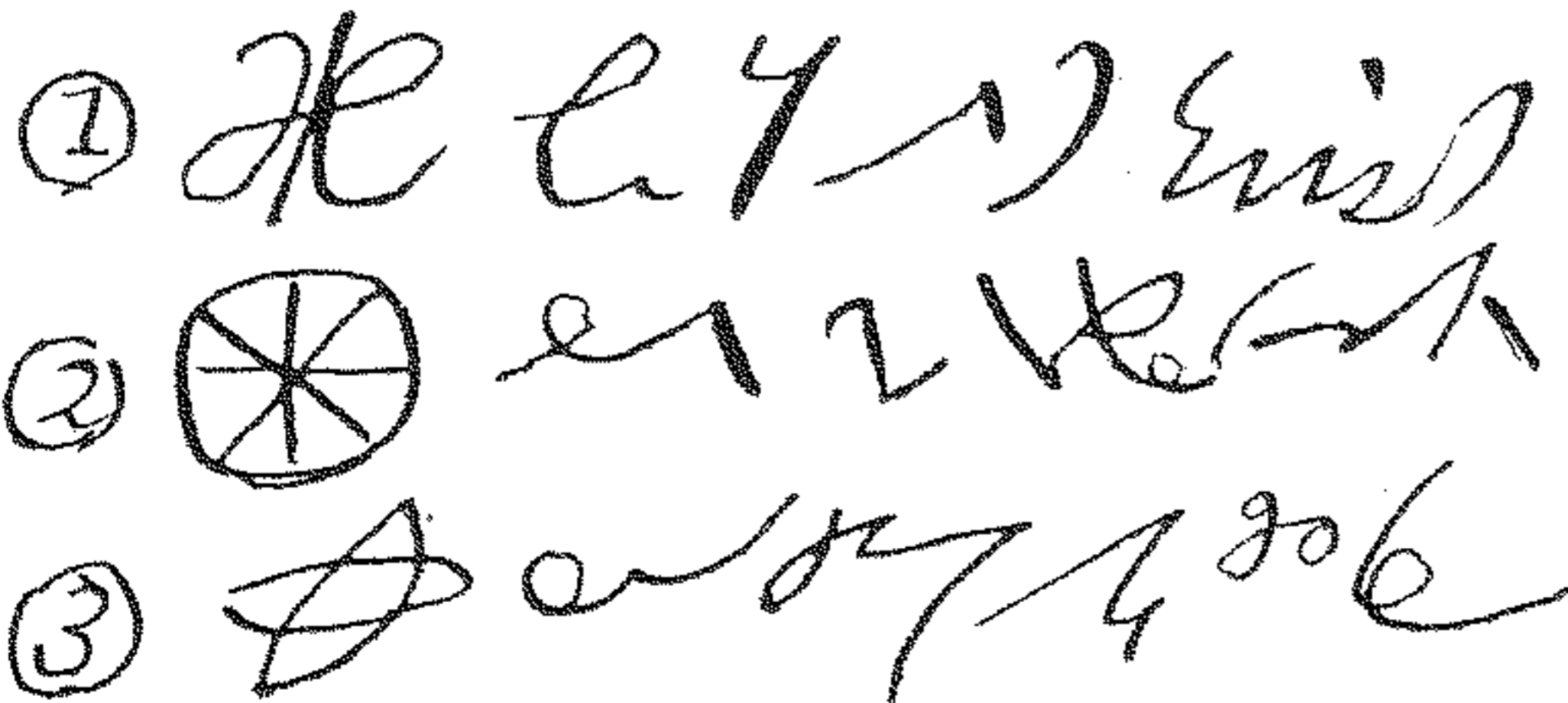
① 독일의 「가벨스」(1834년)는 「알파벳」의 필기체에서 유효(有效)한 상하행(上

下行)의 사선파(斜線派)를 창안하여 지금도 구대륙에서는 많이 쓴다. 이 파에서는 모음을 우행(右行) 직선으로 하는 것과 서선(書線)을 상중하로 나누어 모음으로 삼는 파로 나누어졌다.

② 「콤파스」로 기하(幾何)의 정원(正圓)을 그려 그것을 분선(分線)한 것이 「피트멘」(1837년)이고 그는 한 음절을 쓸 때 자음은 선, 모음은 그 주위에 가점(加點)

을 하기로 하여 단획식(單劃式)을 만들었고 한 음절을 나타내는데 선미(線尾)에 원구(圓鉤)등 부호(符號)를 붙이는 복획식(複劃式)이 생겼다. 단획은 동방식과 일본 나가베식 등이고 복획이 의회식, 고려식, 일파식, 일본 와세다식 등이라 하겠다.

- ① 사 선 파 {우행선모음식 / 서선별모음식} ① 가벨스
- ② 기 하 파 {단획식 / 복획식} ② 피트멘
- ③ 자연선파 {단획식 / 복획식} ③ 그 렉



③ 세째로 자연선(自然線)파라 우선 선재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 각 문 고 하는 「콤파스」 따위를 도무지 염두에 두

지 않고 바른손으로 자유롭게 자선(字線)을 그어 보아 그 필동(筆動)을 기본 선재로 하여 원선(源線)을 얻은 것이 미국 「그렉」(1888년)인데 이는 모음을 원구로 하여 두미(頭尾)에 붙이므로서 복회식이 되고 강준원식은 이의 단회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속기문제는 차례로 「가벨스」 「피트맨」 「그렉」 자식 (71년 10월호 미국 속기 협회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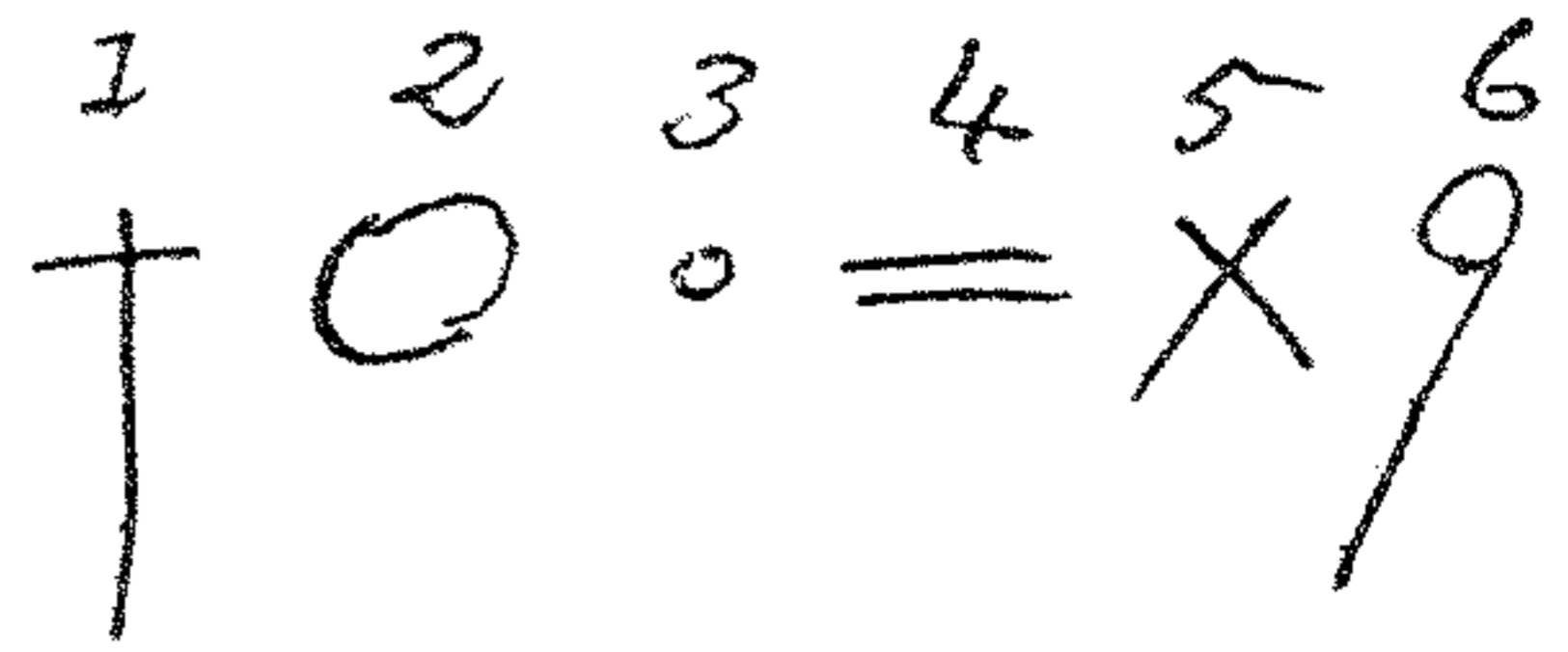
그러나 근대 속기학——아직 뚜렷한 「학」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속기법으로 짜려면, ① 세계 속기학계에서 이미 밝혀진 선부점(線符點)의 단서(單書)의 경우와 연서(連書)의 경우의 그 우열(優劣)이 잘 검토되어야 하고 ② 고유한 우리말의 자모음과 받침과 그 연음(連音)현상과 빈출도 등등 여러 발음 규칙이 잘 분석·종합되어야 하며, ③ 우리 어법(語法)의 속기적 분석·종합이 장차 더욱더 바람직한 탐구분야라 하겠다.

그런데 시세(時勢)로서는 어느 식을 막론하고 판별조건으로써 기본문자에 짚은 또는 굵은 문자는 전폐(全廢)되어야 한다는 지론(持論)이다. 설사 사선파속기일지라도 그렇고 그 이유는 바야흐로 때는 「볼펜시대」이기 때문이다.

모로 가면 서울엘 못가

무슨 파 어느 법식을 막론하고 기본문자만 가지고는 지금의 어속(語速)을 따를 수는 없다. 또 그러한 기본문자를 만들 수 있는 함수(函數)는 도저히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語速을 한 음절 문자로 抄에 6자는 쳐야 할 것이고 어느 선을 나중에 책임지고 읽을 고려에서

쓴다면 초 3선밖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니 (물론 2~3년 훈련을 하면 될 수 있지만 6개월=월 50×6=300시간 치고) 한 획선(劃線) 행위가 두 음절문자를 평준적(平準的)으로 담당해야 한다.



일찌기 유럽에서는 이 어속과 서속(書速)의 「겹」을 타개하기 위하여 약자라는 것에 착안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골치를 썩혔다. 그러나 투철한 체계를 차릴 수 없는 뜨내기 약자들은 ① 빈출(頻出)여부가 보장이 없고 ② 기억하는 노력이 아까운 경우가 많았던지 점점 쇠퇴하여 이제는 과학적인 축자(縮字)의 시대로 옮겨지게 되었다. 위의 예로는 ①은 십자가(이것은 설교에는 아직도 쓰일 것이다.) ②는 under the sun 이란 200년전 「피트맨」 이전의 영어 약자로서 탁형(託形) 방식이고 ③은 일본 어느 법의 「곤난하다」(고마루=小丸·同音). ④는 두 줄을 굿고(二本니혼=日本과 同音) 자기 나라 이름으로 쓰는 스무고개식 탁음(託音) 방식 ⑤는 우리나라 초기의 속기법중의 엑스(X)자——곧 칼싸움의 모습을 그려 전쟁이나 싸움으로 하여 형상화(形象化), ⑥은 「아라비아」숫자 9를 발음「구」로 휘어 잡아 크게 써서 구중궁궐(九重宮闕)이니, 「구렁이」 등의 탁음으로——이들은 덜 쓰기 위하여 더 많이 기억이 강요되고, 또 정확히 읽혀지리라는 아무 보장은 없는 약자광(略字狂)을 방불케 하던 옛 이야기다. (本協會指導委員)

○養○

○成○

○現○

○況○

<國會速記士養成所>

金 敬 萬

萬物의 靈長이라 일컬어지는 人間이 動物과 區別되는 것은 靈妙한 頭腦를 지니고 있는 때문이다.

人間은 誕生하면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처음에는 누워 있지만 차츰 기고 일어서며 걸고 뛰게 된다. 이는 時間의 흐름에 따른 先天的인 成長過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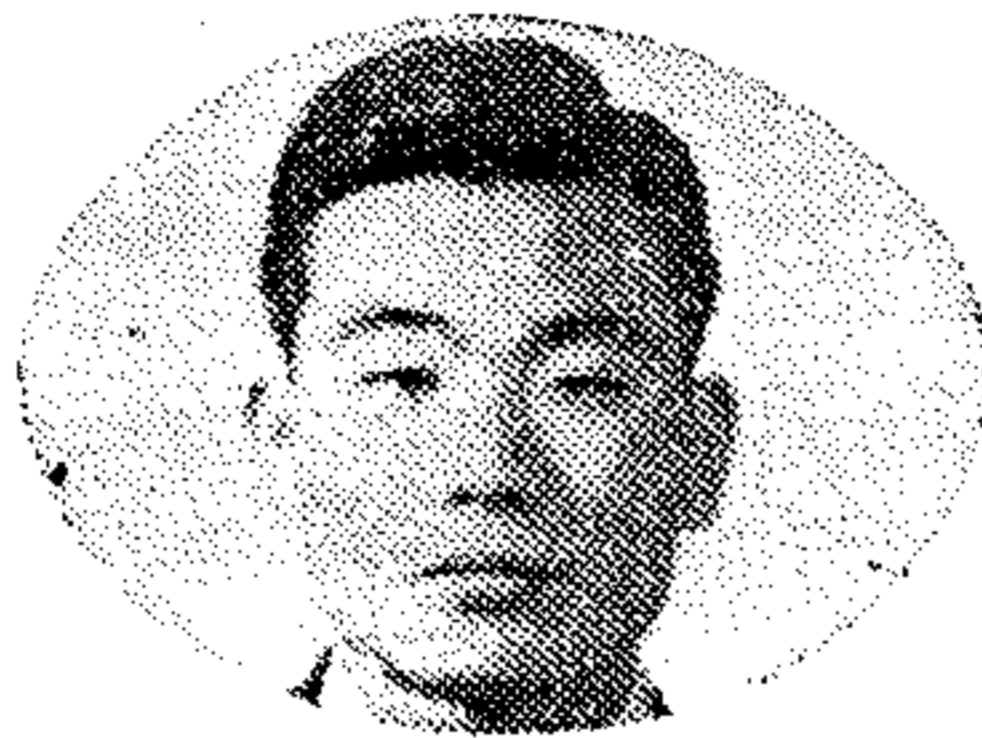
그러나 人間은 先天的인 思考方式이나 行動樣式에 교정을 加하는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後天的인 教育이 必要하다.

教育에는 學習分野가 多樣하다.

先天的인 思考方式이나 行動樣式에 교정을 加하는 學習을 除外하고도 數多한 學習分野는 人間이 成長함에 따라 取捨選擇되며 選擇된 學習分野는 結實을 맺음에 必要한 指導의 努力과 學習者의 絶對的인 熱意와 呼應이 必要한 것이다.

速記는 學問이며 技術이다.

速記가 어렵다는 것은 本란을 除外하고도 強調된 바 있지만 그간의 專門速記士를 養成하는 速記士 養成所의 教育課程과 研修者의 成敗現況을 參考로 들어본다.



速記學術의 教育課程

1. 速記學習의 姿勢

이는 바람직한 速記人을 輩出키 위해 取해지는 姿勢로 高等教育過程까지 12年以上 굳어져 있는 筆記行動樣式을 교정하므로 迅速, 正確한 長時間의 筆記能力을 기르고 頭腦와 視覺의 疲勞를 減기 위해 앉는 姿勢 및 양손의 位置筆記具와 눈의 距離 筆記用具의 羅烈形態 연필잡는 要領等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한 細心한 교정을 가하는 速記學術研修의 初步段階이다.

2. 速記의 學習

速記文字는 一般文字와 같이 約束에 의한 秩序整然한 符號文字의 羅烈體系로서 이의 學問的 價値와 文字構成形態의 方法과 略字 그리고 言語速度에 一致할 수 있게 짜여진 略法等等 多樣한 言語變化에 適應케 한 文字의 構成原理 및 速結體系의 要領에 관한 學習과정으로 머리로 記憶하며 손으로 익히는 正確한 筆記能力을 研修하는 과정이다.

3. 速記術의 研磨

速記學의 過程이 끝나면 實施되는 實技 敎育으로서 筆記能力의 修練을 위해 段階的으로 쌓아가는 過程이며 符號文字를 一般文字化하는 過程까지 研修해야 하는 過程으로 研修者에게는 항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曲藝師의 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한 寸刻이라도 放心해서는 안되는 苦된 訓練이다.

다음은 1972學年度 速記士養成所의 速記學術의 進도 및 速度研修과정이다.

速記士養成現況

速記란 無形의 言語를 귀로 포착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特定의 符號文字로서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正確하게 記錄하고
速記學 (15주)

敎課內容	所要期間	備考
基本文字	4 주	
받침	2 주	
變字와 品詞	5 주	
略字와 略法	4 주	

速記術 (24주)

進 度 速 度		所要期間	備考
演 說	論 說		
101字~150字		3주	
151字~200字		4주	
201字~250字	200字~220字	4주	
251字~300字	221字~270字	9주	
301字~330字	271字~290字	4주	

※ 이 計劃은 夏季, 冬季방학期間 2 개 月을 除外한 39주간의 계획이다.

다음은 每年 增加한 速度計劃表이다.

學年度	演說	論說	法 式	備 考
1968學年度	300字	270字	일파, 고려	수료
1969 "	310字	270字	의 회	"
1970 "	320字	280字	"	"
1971 "	330字	280字	"	"
1972 "	330字	290字	"	교육중

※ 이 表는 演說文의 경우는 每年 10字의 增加와 論說文의 경우는 2年에 10字의 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1968學年度에는 演說文과 論說文이 30字의 폭을 보이고 있으나, 1972學年度는 40字의 폭을 보이고 있다.

一般文字化하는 活動이다.

形態가 없는 言語를 形態가 없는 그대로 機械에 담는 것이 錄音이다.

이는 人間의 頭腦로 發明한 機械의 操作에 의한 活動이다.

그러나 速記는 그때그때 頭腦와 肉體의 움직임이 함께 해서 일어나는 形態가 없는 言語를 눈으로 볼 수 있는 文字로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學習과정이다.

다음의 表는 志願者對 募集學生定員의 現況이다.

學 年 度	志 願 者	募集定員	比 率
1968學年度	680名	60名	11.3 : 1
1969 "	648名	100名	6.5 : 1
1970 "	616名	100名	6.2 : 1
1971 "	628名	100名	6.3 : 1
1972 "	838名	100名	8.4 : 1
計	3,210名	460名	6.9 : 1

다음 表는 募集學生定員 및 재적학생과 修了(80점以上 得點者)의 現況이다.

學年度	定員	재적자	비율	수료자	비율	비고
1968學年度	60名	45名	75%	28名	47%	逸波・高壓法式
1969 "	100名	53名	53%	30名	30%	議會法式
1970 "	100名	46名	46%	33名	33%	"
1971 "	100名	46名	46%	29名	29%	"
計	360名	190名	52.9%	120名	33%	

다음의 表는 修了者와 修了試驗結果 職業速記人의 資格(90點 以上 得點者)을 갖춘 現況이다.

學年度	修了者	90點以上 資格者	比率
1968學年度	28名	15名	54%
1969 "	30名	9名	30%
1970 "	33名	13名	39%
1971 "	29名	14名	48%
計	120名	51名	43%

※ 이 表는 一般課目を 除外한 速記學. 術課目に 限한다.

다음 表는 90點以上 得點者에 대한 就業現況이다.

學年度	90點以上 資格者	就業者	比率
1968學年度	15名	9名	60%
1969 "	9名	8名	89%
1970 "	13名	12名	92%
1971 "	14名	5名	36%
計	51名	34名	67%

※ 이 表는 國會速記士로 就業한 現況에 限한다.

다음 表는 募集學生定員과 就業資格者의 現況이다.

學年度	募集定員	就業資格者	比率
1968學年度	60名	15名	25%
1969 "	100名	9名	9%
1970 "	100名	13名	13%
1971 "	100名	14名	14%
計	360名	51名	14.1%

끝으로 募集學生定員과 國會就業者現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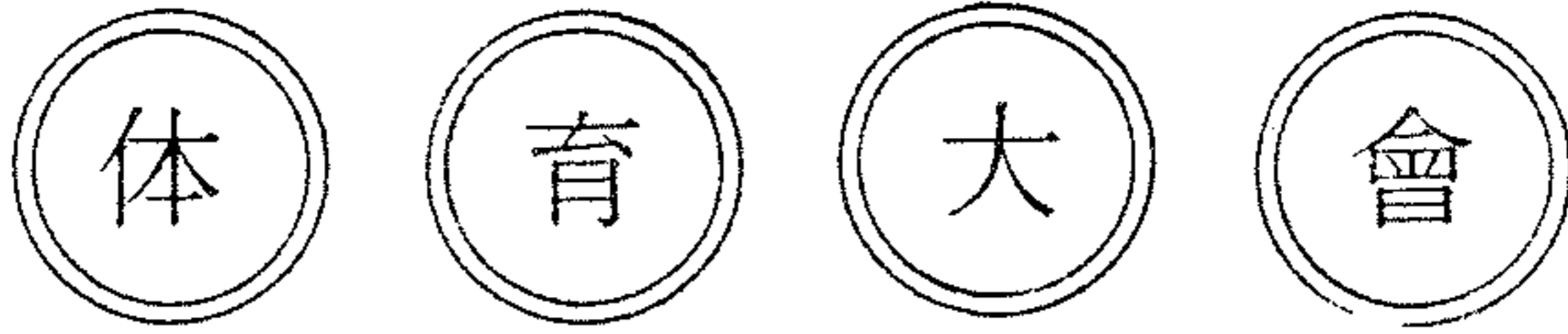
學年度	募集定員	就業者	比率
1968學年度	60名	9名	15%
1969 "	100名	8名	8%
1970 "	100名	12名	12%
1971 "	100名	5名	5%
計	360名	34名	9.4%

以上은 加速化하는 言語速度에 밀받침을 하고 있는 速記學・術의 發展狀況과 募集定員에 대한 就業資格者가 14.1%로 나타나고 있음은 研修의 어려움과 教育期間의 짧음을 證明해준 것이다.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速記界의 앞날에 바람직한 速記人材의 續出을 祈願한다.

(國會速記士養成所 速記學講師)

第2回全國速記人



高 用 培

그것은 완전히 해방이었다.

막았던 독을 터놓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처럼 우리들은 환성을 지르며 대자연의 품으로 달렸다.

속기인들을 태운 3대의 버스가 5월 7일 화창한 날씨를 꿰뚫고 京釜高速道路를 근 1시간가량 달리자 安城「인터체인지」가 저만큼 보였다.

마중나와 있던 安城警察署 白車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安城郡孔道面馬井里에 자리잡은 孔道중학교에 도착했을때 학교측의 협조로 깨끗이 단장된 球場이 황토빛나는 이를 드러내며 우리를 맞이하는 듯했다.

5월의 눈부신 태양아래 선수와 응원단은 「팀」마다의 우승을 다짐하는 「유니폼」을 자랑하면서 大會式을 가졌다.

대회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安仁榮이사장), 金龍泰 회장님의 대회사에 이어 이곳 出身의 徐相潑國會建設委員長의 축사, 그리고 鮮于宗源 國회사무총장의 격려사가 있는 다음 申世華사업부장의 경기진행방법 설명과 각「팀」 소개를 끝으로 대회식이 끝났다.

이어 10시 50분 주심 韓鍾烈, 선심 徐秉運, 全海成회원의 심판으로 푸른 上衣

와 하얀 下衣의 「유니폼」을 입은 靑龍「팀」(속기 3·4계, 단장 金永善, 주장 및 「코치」 崔錫模)과 하얀 上衣 「유니폼」앞 가슴에 패기 당당한 白虎를 그려 붙인 白虎「팀」(속기 5·6계, 단장 孫弘基, 주장 金鍾壽, 「코치」 金基英)의 첫 「게임」이 시작되었다.

「아마추어」 축구「팀」이라기에는 국가대표「팀」이 무색할 정도로 멋진 경기진행은 구경하는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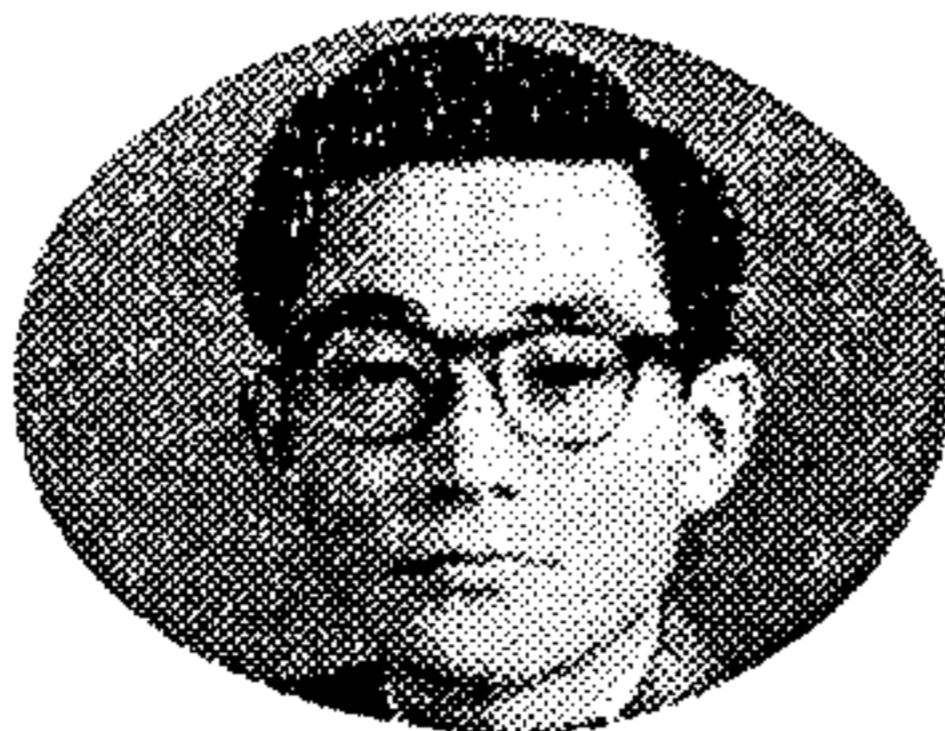
여자 응원단들의 안타까운 高聲이 푸른 하늘에 울려 퍼졌으나 전반전 「스코어」는 0:0, 후반전에 들어서서 아슬아슬한 순간을 바라보고 있을때 난데없이 현저조달된 어린 학생들의 응원소리가 들렸다.

“백호 이겨라! 백호 이겨라!”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백호「팀」의 權昌茂선수가 푸른 대나무 숲속에 白虎가 으르렁거리는 白虎應援旗를 左右로 힘차게 흔들며 꼬마들을 모아놓고 응원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바탕 呵呵大笑를 하는데 이번에는 꼬마들도 의리상 靑龍「팀」의 응원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權선수……“백호 이겨라!”





꼬마들.....“청룡 이겨라!”

이래서 다시 한번 온 「그라운드」가 웃음바다.

후반전의 「타임」이 거의 끝나가도 득점은 없어 선수들도, 관중들도, 본부석 임원 및 내빈들도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결국 청룡「팀」의 「유세비오」崔滉선수가 「타임·아웃」1분을 남겨놓고 감행한 強「슛」을 백호「팀」의 「골·키퍼」趙東植선수가 뒤로 넘어지며 간신히 내밀어 내긴 했으나 간밤의 말술에 골아 떨어진 趙선수 미처 일어서기 직전 다시한번 가볍게 밀어넣은 것이 「골인」!

여기저기서 터지는 환호성 「만세!」「만세!」

백호「팀」의 「펠레」金鍾壽선수를 비롯 몇몇 노장파들은 國會대표「팀」으로 다년간 연마해온 실력을 발휘했으나 혈기왕성한 청룡「팀」에게 끝내 1:0으로 분패하고 말았다.

× × ×

제2조 경기는 흰上下 「유니폼」에 꾸준하고 묵묵히 싸우고 일하는 황소를 표시한 노란 표찰을 단 황소「팀」(속기 1·2계, 단장 鄭源道, 주장겸 「코치」任哲淳)對

독수리「팀」(편집계·과외회원·고문훈성, 단장 柳炳星, 주장 및 「코치」宋鍾學)의 「게임」이 주심 金鍾壽, 선심 廉德薰, 李永烈회원으로 진행되었다.

글자 그대로 靑壯年「팀」對 老壯「팀」의 열띤 각축전으로 특히 노장「팀」의 朱文玉선수(국회자편과장), 韓圭勳선수(한국은행)의 관록 있는 맹활약이 눈에 띄었으나 전반전은 아무 득점없이 끝났다.

후반전에 접어들자 양「팀」 「골·키퍼」 「멤버·체인저」로 황소「팀」에 金龍泰회장이, 독수리「팀」에 鮮于宗源 국회사무총장이 출전하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환호성! 얼마후 金龍泰회장에 뒤이어 徐相潁의원이, 鮮于宗源 국회사무총장 대신으로 金





泰卿 경기도지사가 교체, 경기는 점점 열을 뿜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불은 독수리「팀」 문전에서 맴돌더니 황소「팀」의 李承哲선수가 企圖한 強「슛」이 「골인!」 황소의 상징인 노란 황소 응원기가 열피게 흔들렸다. 독수리「팀」이 1 점을 「리드」당한 가운데 「타임·아웃」 5분을 남겨놓고 독수리「팀」 주장 宋鍾學선수가 「슛」 한 것이 성공, 한점을 만회하였으나 「업사이드」가 분명, 주심이 「업사이드」선언을 안하자 황소「팀」 「골·키퍼」였던 徐相潁선수 <주심! 심판 잘봐!> 하고 소리쳤지만 주심은 마이동풍……

또 독수리「팀」 朱文玉선수가 단독 「드리블」로 허술한 수비진을 뚫고 「슛」을 시도하기 직전 다급해진 황소팀의 梁源龍선수가 뒤에서 겨안아 위기를 모면, 항의하는 朱선수에게 梁선수 애교있게 살짝 「윙크」, 이래서 다시 웃음바다. 결국 양「팀」은 1:1 동점을 기록. 이어 이미 정해놓은 「룰」에 의해 「페널드키」 3축으로 승부를

가렸으나, 이것 역시 2대 2로 동점, 하는 수 없이 추첨! 황소「팀」의 任哲淳선수, 독수리「팀」의 徐皓正선수가 양「팀」의 決勝에의 신출의 運命을 걸고 추첨에 접했다. 가볍게 날린 두 쪽지中 “勝”字의 쪽지가 徐선수의 손에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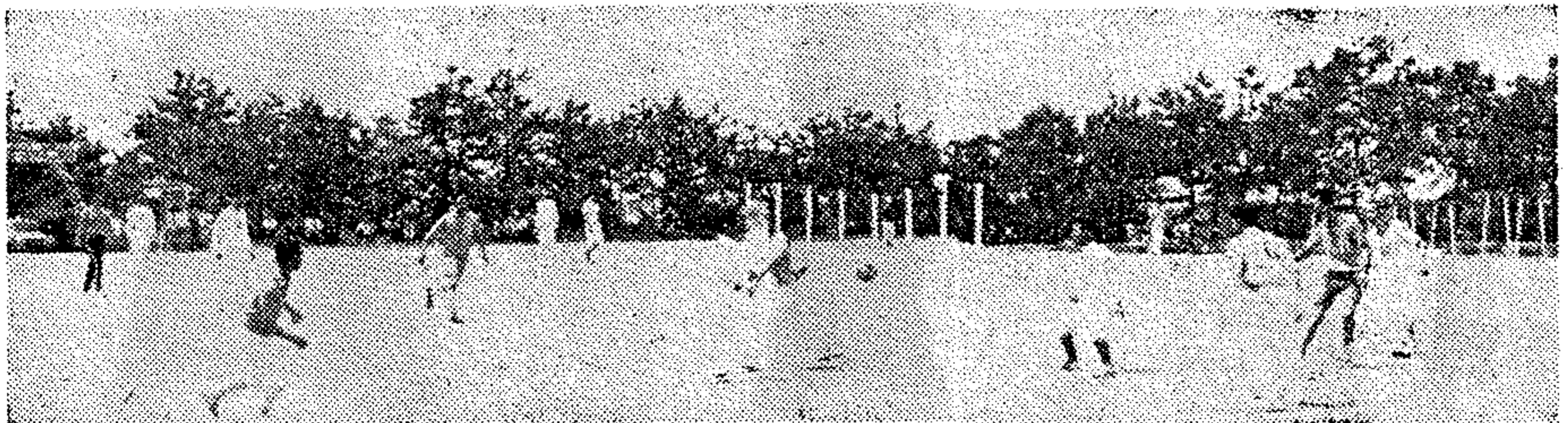
이리하여 제2조 경기는 독수리「팀」의 추첨勝으로 끝났다.

× × ×

드디어 결승전은 청룡「팀」과 독수리「팀」의 대결.

청룡팀 「골·키퍼」에 吉基祥 위원국장, 독수리「팀」 「골·키퍼」에 金鍾仁총무국장 이 맡고, 독수리「팀」 12번에 權孝燮 의사국장, 13번에 尹東寶 의사부국장, 14번에 崔興俊 속기과장, 15번에 安明植 사무총장비서관등 「티오·오버」로 합세, 넓은 운동장에 힘차게 차고 달리는 선수의 수가 합해서 25名 이쯤되자 청룡「팀」에서 가벼운 항의가 나오기도……

마치 국회사무처 간부「팀」으로 둔갑한



독수리「팀」은 의기양양하게 공격을 시도했으나 워낙 젊고 패기왕성한 청룡「팀」에게 딸릴 수 밖에……

응원석의 열광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빨은 어느덧 「하프·라인」을 넘어 「샷」을 거듭하던 청룡「팀」 盧熙南 선수가 「슛」한 빨이 「골인」!

뒤이어 林來炫선수가 또 한점을 차넣어 2대 0으로 전반전을 장식했다.

10여분의 휴식이 끝나고 「게임」은 후반전에 돌입, 응원단의 환호성은 운동장을 메아리쳤다.

그러나 양「팀」선수들 너무도 지쳐 있었고 더구나 패기와 관록을 자랑하던 독수리「팀」 權孝燮선수는 발가락에 부상을 당했던지 경충경충. 또 독수리「팀」의 윤재수(법제처) 선수는 과거 학생시절의 실력을 믿고 온 힘을 다해 달리긴 했으나 헛발질이 90%. 어찌다 발에 맞은 「볼」은 本意 아니게 「볼」이 닿아준 것. 이로서 출전의 意義가 큰 것이 아니냐고 너털웃음으로 하하하……

청룡「팀」 崔滉선수와 독수리「팀」 辛天敎선수의 눈부신 주력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20분이 경과했으나 金東雲 주심은 「패싱·타임」을 계산하는 눈치, 「게임」은 독

점없이 2,3분 연장됐으나 0:0으로 후반전 「타임·아웃」.

드디어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가 주최하는 제 2회 체육대회의 축구시합은 끝나 영광의 금빛 찬란한 우승 「트로피」는 청룡「팀」에게 돌아갔으며 준우승은 독수리「팀」이 차지했다.

소리높이 응원하던 청룡「팀」의 Miss 들,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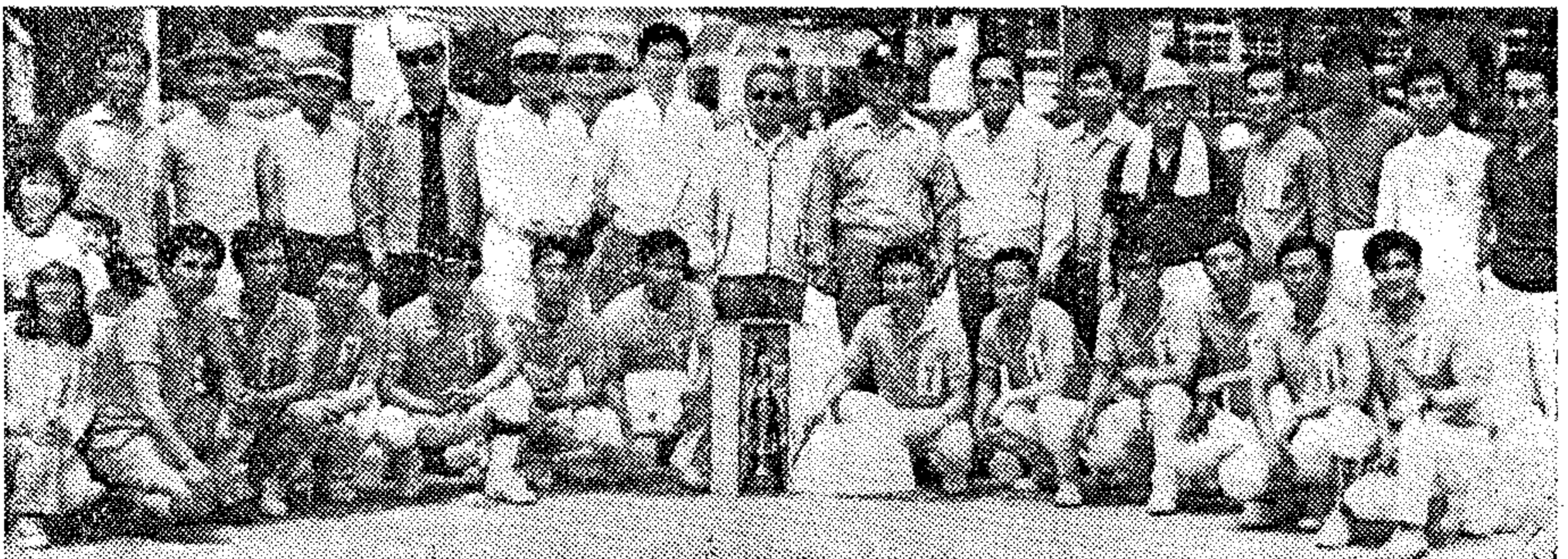
5月の 밝은 태양아래서 젊은 땀과 흐뭇한 웃음이 가득찬 가운데 다음엔 좀더 멋있는 체육대회를 가져야겠다고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해서 한번 「아마츄어」끼리 대외적으로도 겨뤄보리라고 다짐을 하며 속기인들의 심신단련과 상호친목도모의 목적을 성공리에 끝낸 우리들은 다음 「프로」인 야유회를 기대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大林東山을 향했다.

하늘은 그렇게 맑고 태양은 그토록 눈부신 5月이여! 젊음이여!

× × ×

우승「팀」인 청룡「팀」의 「멤버」를 소개하면

단장 金永善 3계장



<우승한 靑龍팀>

「코치」 및 주장 崔錫模 4계장
 선수 1. 崔 滉, 2. 成千永, 3. 徐萬福
 4. 崔秉秀, 5. 高太仲, 6. 朴保和
 7. 高錫光, 8. 盧熙南, 9. 林來炫
 10. 楊澈在, 11. 姜宗遠, 12. 金善弼
 13. 黃寅河

끝으로 이번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第
 2回 體育大會와 대립동산에서 가진 야유

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金龍泰회장
 님과 京鄉新聞사장이신 崔致煥前會長님,
 그리고 徐相濟國會建設委員長님(京畿道龍
 仁·安城출신), 鮮于宗源국회사무총장,
 金泰卿경기도지사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
 며 또한 식사준비에 밤잠을 잊고 수고해
 주신 柳智永, 金仁寧회원의 사모님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用 語 解 說 (第3回)

PPP po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 부담원칙)

環境汚染을 일으킨 기업체가 오염의 排出防止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
 칩은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 현재 국제적으로 「캠페인」
 을 벌이고 있다. 이 원칙의 해석범위를 넓히면 오늘날 환경 오염의 책임은 공
 업화된 선진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개선의 비용은 발생자인 선진국이 부
 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될수 있다고 후진국들은 주장하고 있다.

失權株 기업체가 더 필요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때 그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機雷封鎖 봉쇄를 하는데 기뢰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新造語.

Corres 계약 「코레스」란 Correspondent의 준말·외국환 업무를 위해 외국의 거래
 은행들과 체결하는 환거래 계약

待機性借款 IMF의 회원국이 협정에 의하여 단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출해 쓸 수 있는 차관·이 차관은 언제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기성 차관(Stand-by Ioan)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햄(Ham) 아마츄어 무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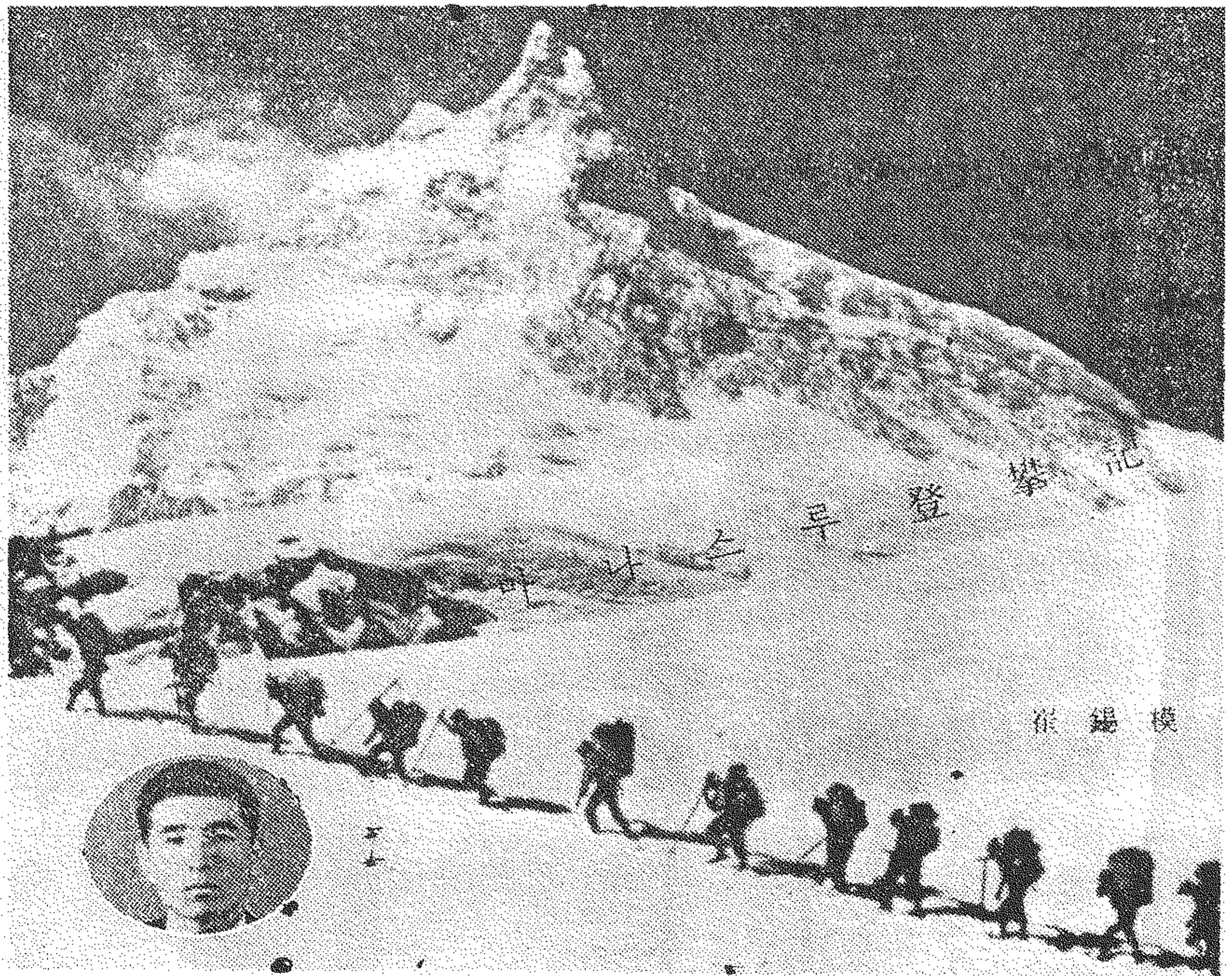
一覽拂輸出 일람불수출 어음의 발행에 의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거래 수
 출상이 수출대금의 회수를 수입상으로 부터 송금되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
 고 수입상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출환어음
 으로 결제를 받는 제도.

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s) 1개국 이상의 외국기업이 한나라의 국
 내기업과 합작하여 설립된 회사.

示範作目班 농협 이동 단위 조합의 하부조직, 같은 농축산물을 생산 재배하는
 농가가 서로 협력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모든것을 협업형태로 공
 동운영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조직.

ABM 요격미사일 Anti-Ballistic Missile의 약자로 대기권밖에서 초고속으로 날
 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에서 포착 파괴하는 방어용 미사일.

「원」화예치 미국의 무상원조로 생기는 「원」화의 일정률을 예치케하여 미국의
 공용비용을 「원」화로 지불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다. (研究委員會 제공)



會員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저는
今年 2月 5日 MANASLU를 向하여 出
國한 뒤 이때까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喜怒哀樂을 實際로 體驗하고 4月 30日 몸
성히 귀국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고 떠났기
에 이에 報答코자 저는 제 나름대로 最善
의 努力을 다하였으며, 더구나 公務員으로
서는 처음으로, 速記士로서도 처음으로
등반대원에 끼었기 때문에 나의 조그마한
과오가 다음 사람에게 「形便없다」는 소리
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하여 MANASLU 雪原을, 雪壁을 오르 내
리며 「컨디션」調整中 不幸히도 4月 10日
의 不意의 不可抗力의 큰 눈사태로 저

회 隊員 5名과 Sherpa 10名 合計 15名の
Himalaya 史上 두번째 가는 큰 희생을 치
르고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대한 환송에 報答하는 길
은 오직 頂上에 태극기와 國會旗를 꽂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에 부단한 努力의 代
價도 아랑곳 없이 그 多情했던 岳友들을
차디찬 雪原에 묻고 돌아온, 차라리 함께
묻히기만 못한 부끄러운 歸國이 面目 없
습니다. 죄송합니다

Himalaya는 아시다시피 길이 2,500km
幅 200km의 弓形의 大山脈입니다. 白頭
山에서 한라산까지의 直線거리가 950km,
休戰線 155마일이 248km이니 여러분께

서 比較해 보시면 엄청나게 큰 山脈이라고 쉽게 理解가 잘 것입니다.

Himalaya 山脈은 크게 6으로 나누어

1. Panjab Himalaya
2. Garhual Himalaya
3. Nepal Himalaya
4. Sikkim Himalaya
5. Bhutan Himalaya
6. Assam Himalaya

로 區分하여 이中 8,000m 以上の 봉우리가 14座 7,000m級 봉우리가 285座나 되어 世界의 높은 山의 總集結體이며 특히 Nepal Himalaya 에는 Everest(8,848m), Cho Oyu 8,511, Lhetse MANASLU (8,156m), Dhaulagiri I (8,167m), Annapurna I (8,091m), Gosainthan (8,013m) 等 大部分의 Himalaya 高峰들이 Nepal Himalaya 에 集結해 있으며 이번 第2次 韓國「마나스루」원정대가 오른 MANASLU 는 北位 28度 33分 00초, 東經 84度 33分 43초에 位置하는 높이 8,156m, 世界 第7位를 자랑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印度 測量局에 Peak ×××으로 記錄되어 있었으며 1940年代에 發見된 山으로써 「산스크리트」語로 MANASLU 는 “영혼”이란 뜻으로 原住民들은 “영혼의 山”이라 하여 무척 崇拜받는 山입니다.

MANASLU 는 1956年 5月 9日 12:30 東北陵으로 오른 日本隊에 의하여 4年만에 初登頂되었으며 1971年 5月 17日 12:15 西北陵으로 오른 역시 日本隊에 의하여 再登頂된 바 있습니다.

韓國隊는 昨年(「스폰서」 서울新聞社) 첫도전을 했다가 東北陵 7,500m地點에서 隊員 한 사람을 잃고 食糧不足으로 後退한 곳입니다.

第2次 韓國「마나스루」원정대의 趣旨는 우리들에게 한시도 잊을 수 없는 宿命의 山이 되어버린 MANASLU 에 再次 도전기어코 今年에야말로 頂上에 태극기를 꽂고 故 金禎燮隊員을 故國으로 운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총대장 金禎燮, 등반대장 金祐燮, 구조대장 徐忠吉, 대원 崔錫模, 具信會, 宋俊行, 延應模, 吳世應, 金禮燮, 카메라맨, 朴昌熙, 安久一成, 朝鮮日報 特派員 尹秉海等 12名의 隊員과 Sherpa 10名, 高所 Poter 11名, Cook 1名 Kitchen-boy 3名, Mail runner 3名 政府 連絡官 1名 計 40名의 한집안 식구들과 Poter 登路 300名, 歸路 150名의 隊의 構成으로 2月 1日 서울을 떠나 6月 15日 頃 歸國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나스루 camp 3(6500m)에 國會山岳會旗를 꽂고 있는 筆者

1月 7日~1月 13日까지 1週間に 걸친 雪岳山 千佛洞 계곡에서 있는 第2回 겨울 등산학교를 修了하고 15日 人事次 K局長님을 訪問했더니 저를 보시고 대뜸 Himalaya 에 가라고 하시기에 처음엔 弄談인줄 알았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더니 2次 정원대원 10名中 2名이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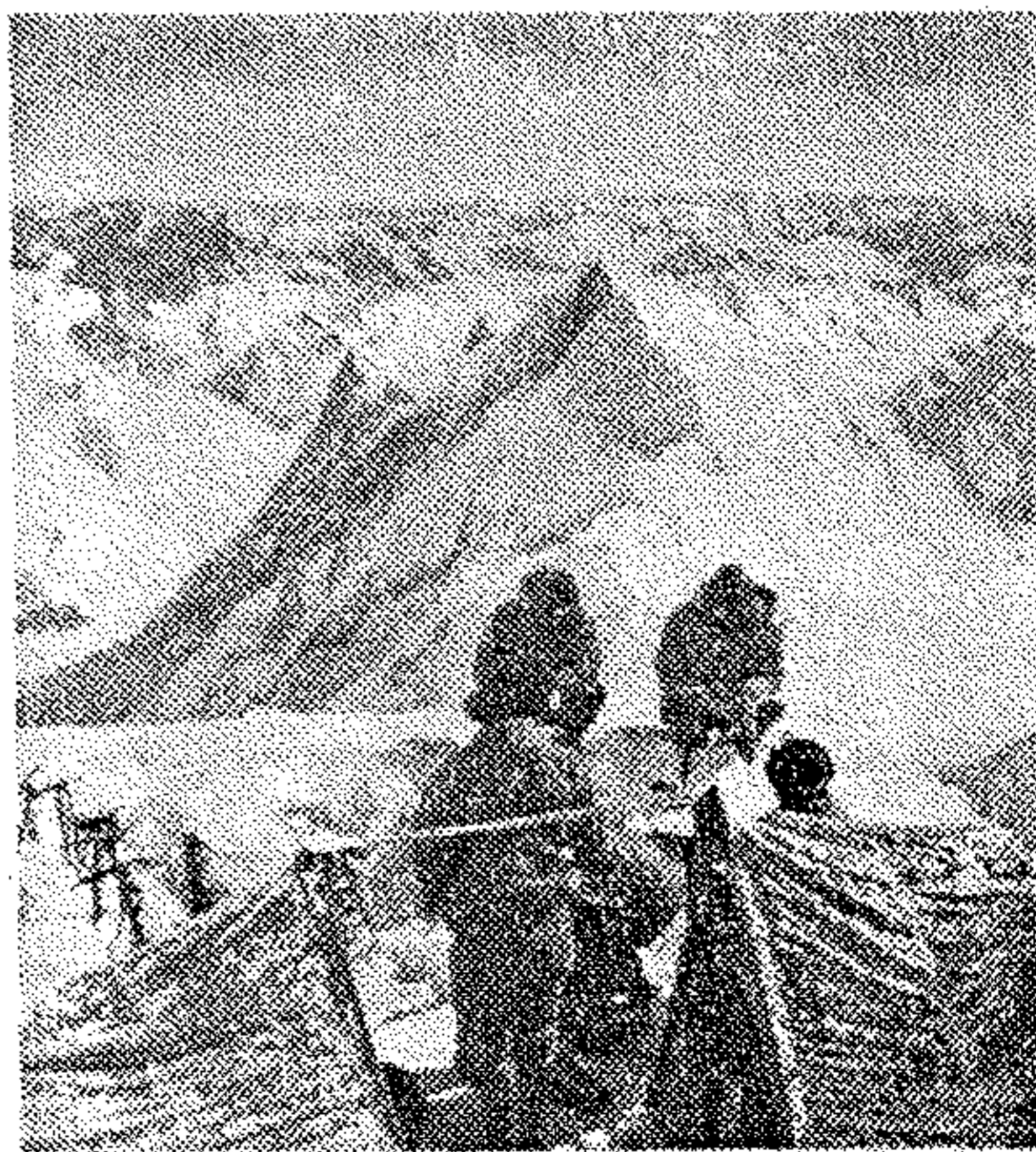
지게 되어 말하자면 代打로 저희 山岳會에서 口頭로 추천했다고 하십니다.

Himalaya! 萬年雪을 이고 人間의 接近을 꺼려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유혹하는 Himalaya는 山을 조금 탔다는 山岳人에게 무척이나 동경의 的이 되어버린 平生 한번 가 보기를 願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莫大한 會費와 더구나 公務員으로서 4個月間이란 休暇를 얻을지 이 두가지 문제만 解決되면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어떻게 해보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셔서 2,3日後 總長님의 裁可를 얻어 出國手續準備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伏兵이 숨어있었으니, 即 집사람의 큰 反對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理解를 시킬려해도 막무가넵니다. 아주 애들과 自己까지 죽이고 떠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 한 1週日을 달랬답니다. 난 한번 마음 먹은 일은 꼭 해 내고 마는 性質을 10餘年 넘어 같이 살면서 다 알지 않느냐, 나같은 사람이 隊員으로 낀 것만도 榮光이 아니냐 이왕 같 사람인데 웃으면서 보내주면 가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겨우 一週日만에 許可(?)를 얻고 나니 좀 후련한 마음 가짐이 있었읍니다마는 旅券 수속관계로 洞會, 稅務署, 兵務廳, 邑事務所를 돌아다니면서 잔돈푼께나 쓰고 그 末端 公務員들의 不親切에 적지 않게 실망도 했읍니다마는 겨우 期日內에 手續을 마치고 2月 3日 저녁 議員 휴게실에서 事務處 여러 幹部님들과 會員 여러분께서 盛大하게 베풀어주신 환송회에 參席하여서야 이제 정말 Himalaya Manaslu에 가는구나 생각하니 그때 정말 걱정이 들더

군요. 이번 가면 정말 무사히 성공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죽지나 않을까? 혹 돌아온다 하여도 다리나 팔에 조그마한 부상도 입지 않고 돌아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出國때까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에라 부딪쳐 보자, 설마 나야 괜찮겠지 하고 열결에 2月 5日 드디어 出國日이 닥아왔습니다. 金浦에서의 그야말로 盛大한 환송식, 제 生前 처음 當하여 보는 Bus 3臺에서 내린 國會職員들과 山岳會員들의 물결속에서 會長님으로부터 會旗를 받아들 때는 기어코 올라 꽃아 이 성원에 報答하겠노라고 몇 번이나 맹서하였답니다.

멋모르고 나온 집 애들을 앞에 하고 멍하니 서있는 아내의 눈물 머금은 모습을 뒤에 하고 우리들 先發隊 5名은 出國申告 稅關을 통과하고 「트랩」까지 따라오르며 「인터뷰」하는 記者들과 헤어져 KAL門이 소리없이 닫히고 비행기가 무사히 離陸하고 제 高度를 잡았을때 이제 진짜 떠나가



camp 3에서 北峰을 배경으로

는구나 싶어 「후유!」 하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은 제 日記抄에서 간추려 본것입니다.

× × ×

SEL-KIM

年初들어 雪岳山에서 10餘日, 出國關係로 20餘日間, 이리뛰고 저리뛰고 送別會, 환송회, 장비구입……其他等等 무척 바빴고 피로웠고 즐거웠던 한달이 「스크린」처럼 지나가고 피로가 몰려온다.

37年만의 첫 出國이라 노상 비행기 창밖으로 내다보는 존스러움을 꺾지 못한다. 마냥 가슴이 설레인다. 지나간 일들, 앞으로 先發隊로서 할 일들을 머리속에 그려보는데 간단한 洋食의 機內食事が 나온다. 金祐燮 登攀隊長의 食事風을 옆눈질하여 따라 흉내내고 食事が 끝날무렵 멀리 구름사이로 자그마한 섬들이 내려다 보인다. 日本이라고 한다. 떠날때 서울은 흐려 있었지만 日本에 들어서자 맑은 날씨여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日本은 마치 한폭의 그림같이 깨끗해 보인다. 잘 다듬어진 耕地整理는 흡사 바둑판처럼 질서가 잡혀 있다. 離陸後 1時間半쯤 지나 OSAKA 空港에 착륙 通關은 Free pass였다. 그날부터 日本도 Taxi 料금이 引上되어 料金表를 別途로 달고 다니는 모습은 우리의 택시料金 引上即後の 그것과 다를바 없었다.

日本이 世界的으로 자랑하는 HIKARI (光) 時急便으로 3時間 9分 걸려 東京에 닿는다. 우리의 觀光號보다 몇 배나 나은 HIKARI 號는 座席이 滿員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며, 승객 모두가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가 하면 설혹 얘기한다 하더라도 옆사람에게 들리는 失禮를 범할까봐 조용조용하지만 우리 一行 5名은 아랑곳없이 바깥의 새로운 風景들을 볼때마다 큰 소리로 합성을 지를때마다 車中の 木視線을 意識하면서도 알미운 놈들! 너희가 과거 우리 祖上들의 피땀을 빨아 지금 잘살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대로 분개했다. 한마디로 日本의 첫 印象은 깨끗하고 秩序가 잡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登山裝備를 日本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어서 5,6,7 3日間은 그 引受에 바빴고, 미처 못 찾은 品目은 後發隊에게 맡기기로 하는等, 日本에서의 3日間은 무척 바쁜 나날이었다. 日 돌아올때 신나게 놀자고, 그러고 그 구경도 그때 하자고, 事實 놀고 구경할 時間이 없었다.

8日 午後 KAL로 OSAKA를 떠나 TAIPEI에 잠시 寄着, 保稅區域만 몇 바퀴 돌고 Shoper들의 「파라다이스」라고 일컬어지는 Hong Kong에 도착했다.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저 좋은 날씨였지만 日本에 비해 조금 「지저분한게」 흠이었다. “매기” Soup 1,700봉지 구입하는 것이 Hong Kong에서의 임무였으나 그 다음날 正午까지 전부 구입과 동시에 Air Cargo까지 完了, 9日 저녁은 Bang-Kok으로 날랐다. Bang kok에 도착하니 밤인데도 “확”하는 밤의 熱氣가 寒帶에서 온 손님들에게 벗기를 強要한다. 마침 KAL에서 MANDALIN HOTEL을 잡아줘서 하룻밤을 편히 쉬었지만 우리나라 겨울에서 Bang Kok의 우리 節候의 三伏더위를 당하니 마침 Air con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市內에 들어오는데 길 양편으로 깃

발이 많이 나부낀다. 우리 一行을 환영하기 위해서인줄 알았다면 큰 誤算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來日 英女王께서 이 나라로 訪問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苦笑을 금치 못했다.

10日 아침 TG 便으로 KTM(카트만두) 向發, 마침 좋은 날씨라 金隊長은 機內 右側窓便으로 앉으라고 한다. 快晴한 날은 Himalaya 의 장관을 볼 수 있는 唯一한 機會라는 것이다.

어제까지는 사뭇 KAL 을 利用하였으나 어떤줄 몰랐으나 이제 오늘부터는 영 서 먹서먹하다. 機內放送으로 알아 들을 수조차 없는 泰國語 다음 유창한 英語가 나오니 KAL 승무원들의 친절하던 모습이 그리워진다.

CALCUTTA까지 2時間, 거기에서 KTM 까지 1時間 가량 Boing 이 나른다. 11:40 비행기 창문으로 드디어 고대하던 大 Himalaya 山脈이 그 雄姿를 나타낸다. 첫 번째가 「카칭중가」라고 한다. 白雪을 머리에 인 큰 봉우리들이 한없이 뻗어지고 한쪽의 그림인양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서있으니 정말 장관이다. 이 좋은 것을 혼자 보다니 하는 사이 급강하하는 飛行機는 계단식으로 온 山을 깎다시피한 盆地에로 着陸準備를 서두른다. 曰 KA THMANDU 라고 한다.

KTM 空港의 珍風景, 通關은 분필로 각 bag 마다 check. 稅關員은 制服이 없는게 特色이다. 맨발로 일 보는 官吏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의복은 지저분한 편이다. Blue Star Hotel 에서 點心을 하다.

오늘은 「마헨드라」國王死亡 11日째 날로 休日, 무슨 큰 의식이 있는 모양인지 住民들이 우르르 몰리고 있다.

해발 1,300m 의 高地 까닭인지 Bang Kok 보다 훨씬 기온이 낮다. Benz 를 타는 富者가 있는가 하면 맨발에 낡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이>를 잡는 사람도 있고 Blue Star Hotel 에서 家族과 함께 點心 食事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가지가지이다.

16:30 RNAC(네팔王國 항공) 雙發機便으로 New Delhi 向發, 離陸後 조금 지나자 2時間後에 걸친 Himalaya 의 장관에 속으로 연신 감탄사를 連發할 뿐이다. 자꾸만 機窓에 기대어 떠날줄 모른다.

18:52 Delhi 空港에 도착 印度땅을 밟은 것이다.

11日 呂領事宅에서 朝食을 마치고 12時까지 30分間 崔大使 面談後 2時間에 걸친 點心대접을 받고 大使館에 入國申告와 登山申告를 마치고 다음날까지 gas charging test 完了後 간단한 shopping,

3日間 머문 印度의 印象은 Big Country! Large country! Big building! Big House! 모두가 “大”짜다. 그런가 하면 한없이 게으른, 지저분한가 하면 富者집은 下人을 몇 10名씩 두고 살고 있으나 富者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가보다. 곧 죽어도 自尊心은 있어서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니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13日 아침 비행기로 隊員들이 기다리는 KTM 으로 돌아오다. <다음호에 계속>

(國會速記第 4 係長)

my first mistake

張 淑 卿

(만일 없으면……?)

(설마……)

(그래도 혹시——)

자문에 자답할 수가 없는 초조스런 마음을 조이면서 집 가까이 다달았던 나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여 돌아섰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그 무슨 감전같은 짜릿한 무엇에 의해 소지품을 살살이 뒤지다가 돌연 행선지를 바꾸기까지는 불과 몇초사이의 순간.

얼마나 설쳤기에,

얼마나 흥분했기에,

감히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아 관심 없는 체, 안보는 체 하면서 기실 열심히 초연을 가장하면서 노력했던 그 사각의 봉투. 이름하여 나의 첫 봉급인것을. 펜스리 얼굴이 달아오르고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울음도 나오려 하고 흥분까지 되려고도 하던 것을 애써 태연한체 마음을 진정하면서 왜 그렇게 보고만 있느냐는 주무님의 말씀에 「오! 메시아여!」 소리죽인 읊조림으로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봉투를 만졌던 손끝이 바르르 떨렸음을 어찌랴. 그 짜릿한 흥분으로 두근대던 희열의 감정이 불과 몇시간 전이었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나는 아무것

도 가진것이 없는 빈털털이 올시다……」라는 지나간 팽송을 새삼 더듬으면서 빗속을 뛰는 것이다.

신은 전재하시는건가? 나의 이 애타는 조바심나는 마음을 위하여 때마침 빗발이 싹싹 내리 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열기 오른 두 볼을 타고 내리면서.

(신이여, 복을 주시려거든 믿지않은 자에게도……) 나의 심장은 극한을 육박하고 있었고 나의 머리속은 실로 구차한 기구까지도 갈구하고 있었다. 신은 결혼식 때 부처님은 장례식때 찾는다면……?

1,200g, 1,200g 하던 미터법 코메디가 연상키울 정도로 나의 심장의 고동은 충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이일을 장차……이 기막힘을. 얼마나 급히 서둘러 이런 봉변을 이 어치구니 없는

사태. 나는 이를 어찌 감수해야 하나.

아무쪼록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으면… 행여 목격자라도 있을때 난 쥐구멍이라도 찾으려 안절부절 못할 것은 뻔한 이치이겠기에 말이다.

사무실이 가까와 올 수록 마음은 급급하면서도 발걸음은 도리어 시속이 더뎠고 있었으니, 한가닥 기대가 스러질 두려움 때문이었나 보다.

「미스」장 웬일이야?” 아이쿠 맏소사,
 “네, 뭘 좀 잊고 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난생 처음 받은 봉급을 잊고서도 뭘 좀이라니, 태연한 척 하는 자신에게 고소플 급치 못했다.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아나보다. 나는 애써 진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떨리는 손길을 의식하면서 서랍, 그리고 책상 밑바닥까지 샅샅이 신경을 곤두세워 열심히 탐색했다.

(없다……)

(설마, 그털리가……)

더욱 초조로워지는 나의 심장은 마구 요동했다. 뒤지고 또 뒤지고 아무리 찾아도 묘연한 사각의 행방, 정시인 나의 시력이 꽤나 큼직했던 사각의 봉투를 발견 못할리도 없을테고, 그렇다면? 아찔, 현기증과 함께 나의 안면은 변해가고 있었다. 심상치 않음을 알으셨던지 자꾸 물으신다. 뭘 잊은게 있느냐고. 그러나 설마 월급봉투를 잊었으리라고 짐작이나 하실까? 이 한심한, 터무니 없이 멍청스러운 내 정신아 어딜 출타하고 부재중이었던나 한심, 한심이로다. 웃음을 자아낼 나의 사실 얘기는 얼마나 얼굴 붉어지는 얘기가 될 것인가.

드디어 나의 몸을 추스리기에도 힘들 정도로 나는 부끄러워 어찌할줄 모르게끔 사건은 발생하고 말았다. 설마했던 한가닥 기대가 산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내가 정신을 잃었을때——이 무슨 운명의 유희런가 이 한심스런 처절한 나의 마음아! “아무말씀 하시어요 네?” 경황중에도 행여 소문이 번질까봐 소심한 마음은 떨고 있었다.

아! 진정 나는 이대로 빈손인 채 집으

로 가야만 하는가! 더욱 거세어진 빗줄기를 의식하면서 아찔한 정신인채로 허탈한 심경인채로 나는 거리를 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야만 하는가를 마음하면서.

그럴줄 알았다면 베풀던 책이나 사버릴 걸 사달라는 「부라보」를 내일로 미루기로 한 영에게 실컷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 걸 그랬지? ——미리는 후회와 회한과 그리고 조금후에 맞부딪힐 나의 행동거지와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길을 돌아돌아 헤매고 있었다. 어떻게 이대로 아침에 그 기세 좋게 발걸음도 가볍게 내달았던 대문을 무거운 발걸음과 떨어뜨린 고개와 한없이 미안한 마음과 슬픈 표정이 묘하게 「앙상블」을 이루면서 변명과 답변과 그 비슷한 구차스런 대사들을 구사하면서 나는 참으로 처량하게 걷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 새옹지마임을 절감하기라도 한듯한 당돌한 생각까지를 병행하면서. 아! 나는 이런채로 집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가! 당연한 명제앞에서 나는 주저하며 회의를 일으키고 있었다. 매마침 어제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기억과 함께 오늘은 역세계 재수없는 날이라고, 무척이나 일진이 사나운 날이라고 나는 애써 그 무엇인가 이 사건을 합리화시키려고까지 비굴해 가고 있었다. 조금전에 빗물인가 눈물인가로 시비했던 그 웃음의 소리들이 지금은 절실한 채, 나의 눈물을 빗줄기에 감추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숫제 내가 무엇때문에 이러는가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저 까닭모를 슬픔으로, 눈물인 채로, ……월급봉투를 받고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눈물짓던 친구의 얼굴과 “유자가 아니라

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질이 없으니 그를 슬허 하노라”는 옛 시조와 그리고 온갖 어느 슬픈 이야기들을 생각해 내려고 필사의 노력을 가했다. 그리하여 실컷 울어버리는 후련함을 가져보자고.

일순 나는 호흡을 정지한 채 문앞에 섰다. 심호흡을 다시 한번 크게 하고 벨을 눌렀다.

“이모, 뭐 잊어버리고 왔어?”

“응, 그래, 왜 무슨 연락이라도?”

조카애의 여린 소리를 삼키듯 큰 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응, 전화가 왔는데, 책상위에 놓고 간 봉투 보관하고 있으니 안심하래!”

시큰, 콧등이 매워오면서 눈물이 솟았다. 좀전 애써 슬픈것들을 상기하면서 흘리고자 했던것 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었음에랴.

그럴줄 알았더면 지름길로 올것을, 내일은 출근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件事’

를 위한 ‘件事’으로 낙착되어 환성을 올릴 다정한 동료들을 생각하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미소가 번진다. 아울러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도.

“나의 첫번째 실수는 당신을 만난것
나의 두번째 실수는 당신을 사랑했던것
나의 세번째 실수는 사랑하는 당신을 떠나 보내고 잊지 못하는것”

내 마음과 하등 상관없는 사연인데도 웬일인지 나는 전축의 「보름」을 높이고 있었다.

my first mistake.....

my first mistake.....

줄이 한곳 튼 「레코드」가 연신 my first mistake 만을 곱돌고 있었다.

나의 육성도 함께였던 my first mistake 가 정지된 때가 정확히 얼마후였는지는 나도 모른다.

(국회속기과)

「速記界」廣告料金案内

「速記界」에 掲載되는 廣告料金を 다음과 같이 決定施行합니다. (1色度 1回分)

表 四.....10,000원

表 三..... 8,000원

本 文..... 5,000원

※ 會員의 廣告는 2割 控除해 드립니다.

※ 會員이 廣告를 받아 왔을 때는 2割의 賞與金を 드립니다.

第 5 回 臨 時 總 會



定款 第37條 規定에 의한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의 第5回 臨時總會가 6월 15일 상오 9시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열렸던바 附議案件은 定款 第3條 目的事項 一部變更의 件이었다.

金鎮基副會長의 開會辭와 安仁榮理事長의 「보다 協會의 性格을 鮮明히 하기 위해 目的事項을 改正코자 한다」는 定款改正案 提案說明에 이어 여러 會員들의 討論을 거쳤는데 이 자리에서 原則的인 反對討論은 없었고 다소 字句修正이 필요하다는 意見이 있었으나 理事會의 原案대로 받아들여자는 金永春회원의 動議에 따라 만장일치로 無修正通過시켰다. 총회에 앞서 6월 3일 理事會에서는 定款改正을 위한 臨時總會를 召集하기로 決定한 바 있었다.

改正된 定款第3條(目的)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3條(目的) 本協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로서 速記文化·學術의 研究發展 및 普及과 速記人의 資質向上을 圖謀하여 時代的 使命感에 副應, 記錄報國과 公益에 奉仕함으로써 國家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

1969. 4. 14 制定
1970. 12. 30 改正
1972. 6. 15 改正

第 1 章 總 則

第 2 章 會 員

第 1 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以下“本協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2 條 (所在地) 本協會의 本部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必要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70. 12. 30 改正)

第 3 條 (目的) 本協會는 速記人의 總集 結體로서 速記文化·學術의 研究發展 및 普及과 速記人의 資質向上을 圖謀하여 時代的 使命感에 副應, 記錄報國과 公益에 奉仕함으로써 國家發展에 寄與함 을 目的으로 한다. (72. 6. 15 改正)

第 4 條 (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速記文化 研究에 關한 事項
2. 速記文化 普及에 關한 事項
3. 社會各界의 速記分野에 關한 事項
4. 速記文化의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5. 速記技能 檢定에 關한 事項
6. 外國速記文化의 交流에 關한 事項
7. 言論報道分野에 있어서의 速記에 關한 事項

第 5 條 (會員資格) 本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名譽會員) 本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로 理事會의 決議로서 名譽會員에 推截된 者.
2. (正會員) 本協會의 會規에 依한 資格審查에 合格된 者(資格審查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써 定한다)
3. (準會員) 本協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을 習得한 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中 理事會의 決議로서 準會員의 資格을 認定받은 者.

第 6 條 (會員의 權利)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協會의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 7 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가진다.

1. (名譽會員) 本協會 運營의 諮問에 應할 수 있다.
2. (正會員)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

等하게 行使하며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事項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3. (準會員) 總會에서 意思表示만을 할 수 있다.

第8條 (會員의 脫退) 會員이 本協會에서 脫退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長에게 脫退書를 提出한다.

第9條 (懲戒) (1) 會員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懲戒할 수 있다.

1. 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2.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할 때
3.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害를 끼친 때

(2) 前項의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除 名
2. 譴 責
3. 資格停止

第 3 章 任 員

第10條 本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2人
3. 理事長 1人
4. 理 事 12人(以內)
5. 監 事 2人

第11條 (選出) (1)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2) 前項의 任員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第12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共히 2年

으로 한다.

다만 補選되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3條 (任員의 職務)

1. (會長)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本協會의 業務를 統理한다.
2. (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3. (理事長) 理事長은 理事會를 代表하며 本協會의 事務를 統轄한다.

第14條 (職務代行)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總務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5條 (理事) 理事會를 통하여 本協會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總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16條 (監事)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行한다.

1. 本協會의 財産事項 監査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의 監査
3. 前2號의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4 章 總 會

第17條 (構成) 總會는 本協會의 最高決議機關이며,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8條 (召集) (1) 總會는 定期 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 定期總會는 年1回 12月中에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臨時總會는 正會員의 3分の 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또는 理事會의 決

議로서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9條 (附議事項) 總會에 附議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3.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4. 任員選出에 관한 事項
5. 其他 委任事項

第20條 (定足數) (1) 總會는 在籍 構成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2) 前項의 議決權은 總會에 出席하는 다른 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 會議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5 章 理 事 會

第21條 (構成) 理事會는 本協會의 執行機關으로서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로 構成한다.

第22條 (召集) 理事會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때나 在籍理事 4人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의 長이 된다. 다만 總會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23條 (附議事項) 理事會에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議決된 事項의 執行에 관한 事項
2.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豫備審議에 관한 事項
3. 豫算決算書作成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運營에 관한 事項
5. 定款改正案의 提出에 관한 事項
6. 會員加入의 決定에 관한 事項
7. 會員懲戒에 관한 事項
8. 其他 重要事項

第24條 (定足數) 理事會는 在籍構成員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者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6 章 執 行 部 署

第25條 (部署) 理事會에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1人을 둔다 (70.12.30 改正)

1. 總務部
2. 財政部
3. 宣傳部
4. 事業部
5. 外國語部
6. 研究委員會
7. 資格審查委員會

第26條 (各部署의 業務分擔) 各部署의 業務分擔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27條 (名 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各部長 및 委員長은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分之2 以上の 贊成으로 選出한다.

第 7 章 財 政

第28條 (財政) (1) 本協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한다.

(2) 基本財産은 年1回 그 目錄을 作成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3) 基本財産은 賃貸 處分 其他 私權을

設定하거나 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9條 (歲入等) 本協會는 다음의 歲入으로 그 歲出에 充當한다.

1. 會 費
2. 補 助 金
3. 贊 助 金
4. 其他收入

第30條 (會計監査) 監事は 本協會의 會計에 관한 事項을 年2回 以上 監査를 하여야 한다.

第31條 (會計年度)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 8 章 事 務 局

第32條 (設置)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第33條 (職員) 事務局에 局長 1人과 職員 若干人을 둘 수 있다.

第34條 (事務局長등) (1)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同意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理事長이 任命한다.

(2)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任務를 處理한다.

(3) 事務局職員은 理事長이 任命한다.

(4) 事務局職員은 事務局長의 指示를 받아 事務局의 業務를 處理한다.

第 9 章 補 則

第35條 (解散) 本協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分の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6條 (殘餘財産) 本協會가 解散할 때에는 그 殘餘 財産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國家 또는 本協會와 類似한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한다.

第37條 (定款變更) (1) 本協會의 定款改正은 理事會決議나 正會員 20名 以上の 署名捺印을 얻어 總會에 提出할 수 있다.

(2) 定款改正은 總會에서 出席會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決定하여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38條 (規則)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本協會의 規則으로 定한다.

1. 支部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
2. 事務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
3. 會議召集運營에 관한 事項

附 則

(1) 本協會는 大韓速記協會 解散과 더불어 一切의 그 業務를 引受한다.

(2) (經過措置) 1. 이 定款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社團法人의 許可를 얻음으로써 그 効力이 發生한다.

2. 創立 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協會의 最初の 正會員이 된다.

會

務

日

誌

4. 1 「速記界」第9號 發刊・配付
4. 17 Fy. 72 國庫補助事業計劃 承認 및 補助金交付決定通知書 接受
4. 21 第33次 理事會
1. 體育大會 開催의 件
4. 26 法人 任員就任 認可
- 會 長 金 龍 泰
- 副會長 金 鎮 基
- 第8次 資格審査委員會 (採點基準)
5. 7 第2回 體育大會(蹴球) 및 野遊會(安城孔道中學校・大林동산)
5. 22 行政改革調查委員會 法人體實態調查
5. 26 Fy. 72 1/4分期 國庫補助金 受領
6. 3 第34次 理事會
1. 2/4分期 事業執行에 대한 件
 2. 定款一部改正
 3. 臨時總會 開催의 件
6. 12 第10次「速記界」編輯委員會
6. 15 第5回 臨時總會 開催
1. 經過報告
 2. 定款第3條(目的)改正

<總 務 部>

編輯後記

○ 체육대회며 임시총회를 거치는 사이에도 원고는 소리없이 거두어졌다. 제10호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더 알뜰하게」「개선점을 찾아」 편집위원들의 마음씀씀이는 여기에도 미친다.

크고 작은 일거리와 행사의 뒤편에서의 이런 수고로움끝에 편집후기를 쓰기에 이르는 것이다. 마치 과수밭을 지나며 열매를 모으듯이, 또는 계절의 바뀜과 비바람 지나는 동안에도 농부가 과일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듯……

○ 편집에 있어서, 속기이론면이나 실무면이나 협회운영면 등에 골고루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용어해설」이나 李升九선생의 「된소리와 격한소리 표기의 몇가지」는 특히 여러분들의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바쁘신중에도 원고를 써주신 李선생님께 고마움을 드린다. (致)

○ 이번 號에는 폭넓은 방향으로 편집이 된듯하다.

특히 崔錫模회원의 「마나스루登攀記」는 「히말라야」를 함께 호흡하며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원고이다. 次號에도 계속 실릴 예정이다.

○ 협회의 연중행사로 安城골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공해문제를 떠나 속기인들의 심신단련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더 좋은 의도의, 더 좋은 행사가 자주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지…… (仙)

季刊 速記界

〈第10號〉

1972年 6月 30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梁 源 龍

印刷 光明印刷公社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6897 · 6940

發 **祝** 展

社團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法人

官認 東邦速記學院

院長 李 東 根

學 院 案 內

☆ 創立 25周年!

◇ 우리나라 唯一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 本 科..... 4.個月
- 研修科..... 1年
- 資 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本 科..... 3個月
- 研修科..... 1年
- 資 格..... 高卒以上

修了後

國會,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社, 留學時的
筆記 및 알바이트等 高級就業으로 社會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⑦3 1266